소년단

1960, 3

동시

지종지종 종달새야

윤 복 진

지종지종 종달새야, 어디쯤 날아왔나
이제사 날개펴고 떠나올 차비하나…

찬바람 쌩쌩, 눈'가루 휘날려도
어버이들 가슴엔 봄'날이 왔단다.

넓은 조합 마당에 짚단성 높이 쌓고
나래를 엮는단다. 봄'날을 앞당긴다.

× ×

지종지종 종달새야, 어디쯤 날아왔나
상기도 강남땅에 봄'노래를 부르나…

우리 조합 살려 온 《천리마》호 뜨락또르
눈'속에서 퇴비를 논 밭에 다 내고

오늘은야 개바닥흙 실어 나른단다
넓은 들에 한번 깔아 땅도야 봄맞는다.

지종지종 종달새야, 어디쯤 날아왔나
머나먼 남해 바다 이제사 건너오나…

눈'속에 파묻어 싹을 낸 옥수수
사래긴 조합 밭에 내다 심었단다.

해'빛 바른 양계장 따스한 어리안엔
솜병아리 비용비용, 우리의 새봄 노래한다.

× ×

지종지종 종달새야, 어디쯤 날아왔나
너는 그래 이제사 떠날 차비하겠구나…

시내'가엔 민둘레, 강기슭엔 달맞이 꽃
우리 분단 토끼 풀밭 두 군데나 만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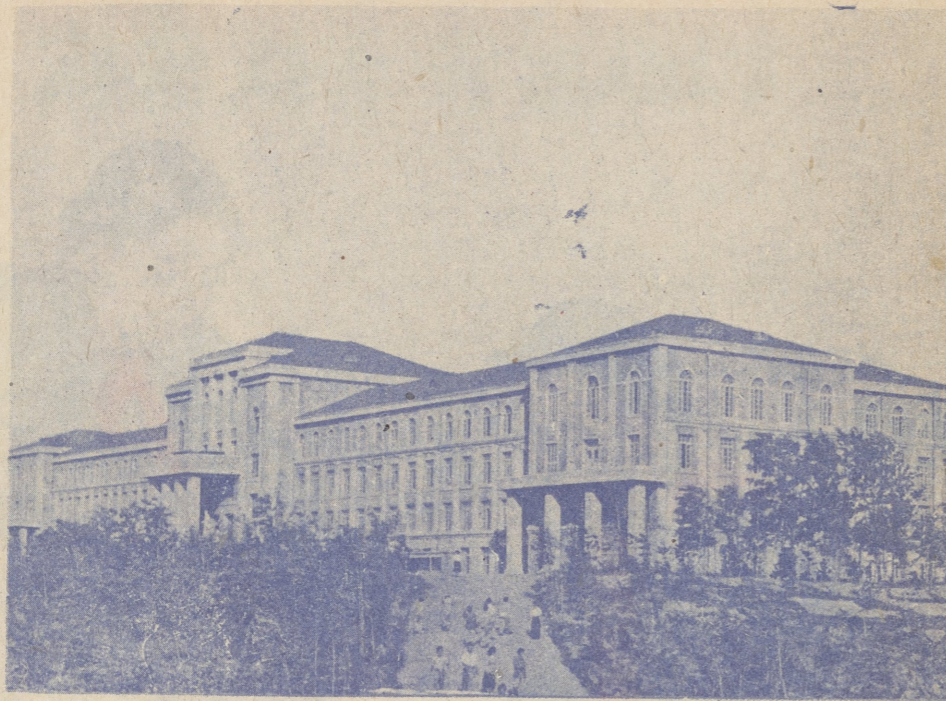
앞남산엔 잣나무, 뒤'동산엔 밤나무
올해는야 숫한 나무 우리는야 심는다.

1960. 2. 10

공산주의 건설의 후비대가 되기 위하여 항상 준비하자!

소년단 1960년 3호 내용

로동당 만세!

(제 4 회)

배움의 전당 김 일성 종합 대학

박 세 영

배움의 길 바다처럼 열렸다

생각만 해도 끔찍하구나, 남조선은
백만이 넘는 아이들이 학교엘 못가고,
거러지로 된 아동들만도 몇 십만이냐,
미군에 짓밟힌 남조선은 처참하구나,

쓰러질듯 왜놈때 학교가 울상을 하고
그나마 돈 있는 집 자식들만 배우는
학교,
왜놈때는 왜놈이 되라 글 가르치고,
오늘은 미국놈 종이 되라 글 가르친다.

그런데 우리들은 얼마나 행복하냐,
《아는 것이 힘이다》 누구나 배우니,

《20 개조 정강》이 밝힌 것처럼
인민 교육 제도는 원수님의 뜻.

그러기 일하면서도 로동자들도 배우고
배우면서도 일하는 민주의 나라,
우리 강산 어디에나 학교는 서고
산'골 물'소리 보다 글읽는 소리 랑랑하
다.

배움의 길, 정말 바다처럼 열렸구나,
대학도 거저 배우는 우리 새 세상
못 배워 원한이던 어버이 생각으로
힘껏 마음껏 배울길 열렸구나.

인민들 일어 났네

쌀 많이 나던 남조선 땅에서
《쌀을 달라》 벌'떼처럼 일어났네.
쌀 많이 나던 땅이면 무엇하나,
미군의 비행장만 늘어 갔네.

별처럼 많던 인민 위원회 없앴으니
인민들은 북조선 바라보며 일어났네
《정권은 인민 위원회에 넘기라》고,
《미국 강도들은 물러 가라》고,

먹을래야 먹을 수 없고
일할래야 일자리 없는 남조선,

《앉아서 죽느니 보다 서서 싸우자》
로동자 농민들 앞장서 일어났네.

우리 당이 내세운 평화 통일 받들며
북조선 로동자들은 그들을 도왔네
뜨거운 민주의 손'길을 느끼며
새 세상 찾으려 남조선 인민들 싸웠네.

허나 묻혔던 옥을 모두 들쳐 내주듯
간첩 도당은 애국자들을 잡히게 했네.
인민의 피로 끝난 《10월 인민 항쟁》
오늘도 미군 나가라 메아리 치네.
괴뢰 도당을 반대해 아우성 치네.

당 두리에 뭉친 힘

남이 잘 되는 것 탐내며 싫어하는 놈
그런 놈들이 바로 도적놈이다.
그러기 북조선의 민주 건설이 두려워
미제는 미칠 듯이 날뛰였다.

그대로 둔다면 남조선도
식민지로 맨들기 전에 쫓겨날 것이라고
남조선의 모든 애국 정당 물어 뜯고
승냥이의 본성 세상에 드러냈다.

나라가 어려운 일에 부닥쳤을 때
김 일성 원수는 나갈 길 가리키셨다.

마치 조국 광복회 때에 밝혀 주신듯
넓은 민주 력량을 합치라 하셨다.

나라를 사랑하는 모든 힘을 모아
민주주의 민족 통일 전선을 무으게 하고,
로동자와 근로자들 당 두리에 뭉쳐
민주 기지 튼튼히 꾸리였다.

어머니 강으로 모든 강이 흘러 들듯
그래서 큰 힘을 낳고 생명수 되듯.
당은 조국을 자유 독립의 길로 이끌었다.
평화 통일의 길로 인민을 내닫게 했다.

한 아동단원이 걸어온 길 (3)

글 박 응호
그림 유 환기

① 그가 얼마 후 깨여났을 때 그의 주위에는 왼팔을 부상당한 오삼 형님 그리고 많은 부녀 회원들이 모여 앉아 있었다. 그들은 걱정어린 눈으로 원주를 바라 보고 있었다. 원주는 번쩍 정신이 들어 자리를 차고 일어 났다. 이때에 오삼 형님이 가벼이 그의 어깨를 누르며 《걱정말고 누워 있거라! 만석이가 대신 보초를 서고 있다!》하고 부드럽게 말하였다.

② 모든 사연을 알게 된 원주는 깊은 가책에 사로잡혔다. 그는 자기의 어리석은 행동을 자신이 미워하며 안달아 하였다.

《규률, 이것은 생명이다! 나는 규률을 위반했다! 그리구두 누워 있구나! 안된다! 나는 혁명을 위해 싸우는 아동단원이다! 나는 마땅히 벌을 받아야 한다.》

원주는 벌떡 자리를 차고 일어 났다.

③ 눈보라는 더욱 기승을 부리며 울부짖었다. 원주는 옷을 줏어 입고 밖으로 나왔다. 그리고는 눈보라 속에 홀로 서서 자신이 주는 벌을 받고 있었다. 원주는 아동단에 입단하면서 규률을 모범적으로 지킬 데 대해 맹세하던 자기를 도리켜 보는 것이였다. 《그렇다! 규률에는 리유란 있을 수 없다! 나는 마땅히 벌을 받아야 한다!》

④ 1935년 새 봄, 유격부대는 안도현 처창즈로 유격 근거지를 옮겨 갔다. 얼마후 원주도 다른 아동단원들과 함께 처창즈로 떠나 갔다. 그들이 새 유격 근거지에 도착했을 때 유격대원들은 아동단원들을 위하여 학교며 기숙사까지 세워 놓고 기다리고 있었다.

⑤ 부모를 잃은 50여 명 아이들은 기숙사에서 행복하게 살았다. 아동단원들은 일과표에 의해 규률 있는 생활을 하였다. 이들의 하루 생활은 학습과 유희 그리고 유격대를 돕는 일이였다. 소대장이 된 원주는 아동단원들을 자기 형제처럼 사랑하고 아꼈다. 그는 밤에 잠잘 때도 혼자 일어나 아이들을 돌보며 돌아 다녔다.

⑥ 하루는 순길이가 버섯을 따려 숲 속에 들어갔다 낭떠러지에서 굴러 나 두 발을 시긋뜨렸다. 그래 요사이 순길이는 혼자 기숙사에 남아 있군 하였다. 그는 아이들이 식량을 구하려 떠나는 때면 걷지 못하는 것을 늘 안달아 하였다.

⑦ 원주는 이날도 자기 소대 아이들을 데리고 깊은 밀림으로 들어 갔다. 버섯, 잣, 나물들을 캐기 위해서였다. 왜놈들의 두 겹 세 겹의 포위 속에 든 처창즈에는 식량 사정이 제일 곤난했었다. 그래 아이들은 식량을 보탬하기 위해 매일처럼 밀림으로 가지 않으면 안되였다.

⑧ 오후가 되였을 때 멀리서 총소리가 들려 왔다. 그러자 련이여 콩볶듯 짖어대는 총소리가 들렸다. 유격대가 출동한 틈을 타서 왜놈 《토벌대》 놈들이 쳐들어 온 것이 틀림 없었다. 원주의 머리 속에는 혼자 기숙사에 남아 있는 순길이 생각이 번개처럼 스쳐 지났다.

⑨ 원주는 아이들더러 여기서 기다리라고 한 마디 던지고는 바람처럼 마을을 향해 달려 내려갔다.

그의 머리에는 오직 움직이지 못하는 순길이를 구원해야 한다는 한 가지 생각 뿐이였다. 그는 가시넝쿨에 손발이 찔리우는 것도 아랑곳 하지 않고 뛰고 또 뛰였다.

⑩ 원주가 마을 입구까지 이르렀을 때였다. 마을은 불'길에 휩싸였고 총소리와 사람들의 아우성 소리가 터졌다. 수 많은 왜놈들이 피난하는 마을 사람들을 닥치는 대로 죽이고 있었다. 원주는 부드득 이를 갈았다.

⑪ 기숙사로 가자면 마을 한복판을 꿰고 가야 했다. 원주는 모든 위험을 무릅쓰고 연기에 싸인 마을로 달려 들어 갔다. 그가 집 모서리를 돌아 섰을 때였다. 총창을 비껴든 왜놈 두 놈이 불숙 그 앞에 나타났다.

⑫원주는 눈 앞이 아찔해 지는 것을 느꼈다. 그는 획 돌아서 뒤로 빠져 나가려 하였다. 그런데 뒤에서도 한 놈의 왜놈이 짐승 같은 소리를 지르며 달려 들었다. 빠질 길이란 없었다. 좌우 집들은 시뻘건 불'길에 휩싸여 있었고 앞뒤로는 왜놈들이 달려들고 있었다.

(다음 호에 계속)

글 강 능 수　　　그림 김 덕 상

신작로에 접어 들어 얼마 못가서 용준이와 기철이는 마주 오는 두 아주머니를 볼 수 있었다. 그들은 무엇에 쫓기 듯 슬금슬금 뒤를 돌아 보며 걸음을 재우치고 있었다. 한 아주머니가 용준이의 귀에 대고 속삭이듯 말했다.

《애들아, 이 길을 가다간 결단 난다 결단나.》

《뭔데요?》

아주머니는 더욱 음성을 낮춰 말했다.

《왜놈 헌병이야!》

《우린 할머니네 집에 놀려 가는 걸요.》

용준이는 아주머니를 치켜 보며 눈을 생글 거리며 대답했다.

《애들두 겁두 없군 쯧쯧.》

아주머니들은 혀를 차며 종종걸음을 재우쳤다. 아주머니들이 멀어 지자 용준이는 사방을 살폈다. 신작로를 빠져서 가는 길도 없었거니와 산'길로 가다가는 놈들에게 더욱 수상하게 여겨질 것이였다.

용준이는 정색을 하고 기철이 한테 말했다.

《딴 수가 없어, 정신 차려야 해.》

《응》

기철이는 나직히 대답하며 힘주어 개끈을 잡아 다렸다. 검정 강아지는 잡아 다리는 대로 앞으로 달리려고 목을 잡아 뺐다. 딸랑딸랑 방울 소리가 울렸다. 이윽고 기철이는 용준이를 보며 눈'가에 웃음을 짓고 어깨를 살리면서 휘파람을 불었다. 얼핏 개 목걸이에 눈을 주던 용준이는 걸음을 떼면서 속이 흐뭇하였다. 개 목걸이는 가죽 띠에 거문 헝겁을 몇 겹이나 돌돌 만 것이였다.

(놈들이 그걸 알라구)

용준이는 어제 저녁 지도원 선생한테서 통신 련락을 받고 나오던 일이 생각키웠다. 용준이와 기철이는 중요한 임무를 맡았다는 감격으로 한참 동안 말도 못했다. 거의 집 근처에 이르러서야 용준이가 먼저 말을 꺼냈다.

《지도원 선생님 한테 지시를 받을 때 난 막 가슴이 울렁거리더라, 이런 땐 나두 꼭 빨찌산 아저씨들과 함께 싸우고 있는 것만 같아.》

《나두 그래.》

기철이도 힘 있는 목소리로 대꾸했다. 그러자 그들은 약속이나 한 듯이 용준네 집을 향해 달음박질을 쳤다. 다문 한시라도 가만 있을 수 없었다. 용준네 집에는 이웃 집에서 얻어다 키우는 검정 강아지가 있었다. 두 소년은 가죽 목걸이를 만드느라고 밤 깊도록 앉아 있었다.

이런 것을 생각 하면서 용준이는 히죽이 웃었다. 어딘지 모르게 마음이 든든해지고 힘이 용솟는 것만 같았다.

땅을 들볶는 듯 해는 쨍쨍 내리 쪼였다. 차바퀴 자리가 들숭날숭한 신작로는 깡깡 말라 붙었고 가로수는 잎을 드리운 채 숨을 죽였다. 바람 한점 없었다.

딸랑딸랑! 방울'소리만이 고요한 대기를 흔들었다. 강아지는 무엇이 좋은지 깡충깡충 앞으로 달렸다.

얼마 못 가서 거위 목을 틀어 쥔 듯 왹왹 고아치는 놈들의 목소리가 울렸고 아구구 소리가 스산하게 들렸다.

웃동을 벗어 제낀 쪽제비 수염의 왜놈 헌병이 길 한복판에 떡 버티고 서서 키가 후리후리한 할아버지 한 분을 다까 세우고 있었다.

《이자식아! 아직두 안 내놔?》

《아무 것두 없습니다, 나리.》

할아버지는 목'구멍으로 기여 드는 소리로 말했다. 그의 홋잠뱅이는 부들부들 떨렸다. 쪽제비 수염의 반질반질 윤이 나는 군화 밑에는 수수떡이 짓'이겨져 있었고 주먹 만한 덩어리가 그의 한쪽 무릎에 붙어 있었다. 나드리 가는 할아버지의 봇'짐을 짓'이겨 놓은 게 분명했다.

《안 내놓으면 재미 없어 엉!》

쪽제비 수염은 퉁방울 눈을 해 가지고 씩씩거렸다.

용준이들이 그 곁에 이르자 뚱뚱보 헌병이 막아 섰다.

《어딜 가?》

《할머니네 집에 가요!》

용준이가 대답했다.

《할머니네 집? 거짓말 말어.》

놈은 두 소년의 아래 우를 뚫어지게 훑어 보더니만 묵직한 군화를 기세 있게 떼며 다가 왔다. 그럴때마다 팽팽한 아래'배가 호물호물 춤을 췄다.

《진짜야요.》

《흥》

놈은 왁살스럽게 용준이의 어깨를 나꾸챘다. 용준이는 비틀거리면서 겨우 몸을 바로 잡았다. 호주머니며 옷깃을 샅샅이 뒤져 본 놈은 빈입을 쩝쩝 다시면서 주먹으로 용준이의 뒤통수를 갈겼다.

《머저리 자식.》

용준이는 눈에서 불이 번쩍 나게 아픈 것을 겨우 참으면서 재빨리 기철이 한테서 개끈을 옮겨 받았다. 순간 용준이는 온몸이 굳어져옴을 느꼈다. 뱀의 눈처럼 날카로운 눈이 그를 쏘아 보고 있었다.

《저놈이 어떻게!?》

용준이는 얼핏 눈을 피하며 힘껏 개끈을 글어 쥐였다. 바로 가로수 밑에서 살웃음 띤 엿장사가 용준에게 눈을 쏘며 빼금빼금 담배를 빨고 있었던 것이다. 엿장사의 시커먼 수염턱 한쪽에 세로 기다랗게 찢어진 흠터가 유난히 두드러져 용준에게 안겨왔다.

이윽고 뚱뚱보는 수건으로 손을 문지르며 버티고 서서 훈계조로 말했다.

《쾌니시리 나다니지들 말아 응, 그리고 알지, 빨갱이들이 있으면 곧 일러 바쳐야 해.》

용준이네가 자리를 뜨려는데 엿장사가 엿괴를 열며 살기 웃음을 지였다.

《너희들은 아래'마을에 사는 애들이구나, 엿이나 한 가락씩 먹구 같이 가자.》

《……》

《맛 좋은거다, 돈이 없으면 그 개와 바꿔도 좋아.》

엿장사의 표독스러운 눈이 개 목거리에서 끈으로 옮아져 갔다.

《안돼요.》

기철이가 냉큼 강아지를 그러 안으며 딱 잡아 뗐다.

《흥》

엿장사는 코웃음을 치며 요란스레 괴짝 뚜껑을 닫았다.

얼마쯤 지나서 용준이는 뒤를 힐끗 돌아 보았다. 생각한바 대로 엿장사는 뚱뚱보 곁에 붙어 서서 이쪽을 바라 보며 수근덕거리고 있었다. 용준이는 숨을 거칠게 쉬며 기철이 한테 다가 갔다.

나의 물리 학습

얼마전에 우리 학교 물리 크루쇼크에서는 자석을 만들었습니다. 나는 자석을 만들면서 물리학에서 배운 자석의 원리와 전지의 원리를 더욱 잘 알게 되였습니다. 이렇게 배운 지식은 영원히 머리 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나는 배운 것을 직접 자기 손으로 만들어 보고 실험하는 것이 좋은 학습 방법이라는 것을 더욱 깊이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용수철로 저울 만드는 법》을 배우고 직접 내 손으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리하여 저울의 원리를 잘 알게 되였고 그 저울을 분단에 가져다 토끼 사료를 달르는데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은 압력으로 큰 힘을 얻는 법》을 배우고 고무공에 구멍을 뚫러 물을 놓어 시험해 보았습니다.

이외에도 《잠수함에 대한 원리》를 배우고 나무로 배를 만들어 보기도 했고 쇠를 굳게 만드는 법도 실험해 보았습니다.

지금도 나는 새로 배우는 문제들을 놓고 여러 가지를 만들고 있습니다.

평북 신의주 동명 중학교 제 9분단 리 광수

《기철아! 빨리 가자!》

《응》

《놈들이 눈치 챘어?》

《뭐?》

기철이는 놀란 눈으로 용준이를 바라 보았다. 용준이는 걸음을 재우치면서 말했다.

《지난 가을에 우리 마을에 나타났던 엿장사 있잖아? 마을을 정탐하려 왔던 자식 말야, 그놈이야, 그놈이 우리의 비밀을 눈치 챈것 같아.》

용준이 개끈을 옮겨 쥘 때 날카로운 눈으로 노려 보던 엿장사의 눈과 길다란 흠터가 눈 앞에 얼른거렸다. 지난 가을에 놈은 지금처럼 엿 괴를 메고 마을에 나타났었는데 그때 나무를 해 지고 집으로 돌아 오던 용준이는 동구 앞에 엿 괴를 내려 놓고 놈이 수상쩍은 수작을 아이들

한테 부치는 것을 눈치 채고 인츰 아저씨한테 일러 바쳤던 것이였다.

용준이가 몇몇 아저씨들과 함께 그곳에 이르렀을 때 엿장사놈은 온데 간데 없었다.

(틀림 없이 정탐'군이다. 개자식) 용준이는 입술을 악물었다. 검정개는 여전히 나비 날개 만한 귀쪽을 나풀거리면서 타불타불 달렸다.

산'구비에 이르렀을 때 뒤에서 뚱뚱보의 고함 소리가 들렸다.

《서라!》

용준이와 기철이는 자기도 모르게 멈춰서서 뒤를 돌아 보았다. 신작로에는 벌써 그 엿장사놈이 달려 오고 있었다. 용준이네는 이여 산'굽인돌이로 접어 들었다.

《탕!》

요란한 총소리가 산판의 정적을 깨뜨렸다. 두 소년의 숨'결은 거칠어졌다. 용준이는 눈 앞이 캄캄했다.

(놈들한테 통신 편지가 발각된다면…아니다, 안돼.)

용준이는 문득 멈춰 서서 날째게 기철이한테서 개를 안아 받았다. 그리고 개목걸이에서 달달 만 통신 편지를 끄집어 내여 기철이 한테 내 밀었다.

《기철아! 부탁해.》

《안돼 너는 어떻헐라구?》

《혁명의 명령이야!》

《나두 혁명을 위해 하는 말이야.》

기철이는 지지 않으려구 맞섰다. 여느 때 같으면 기철이도 용준의 말을 들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들을 수가 없었다. 여기에 남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해 주는 가를 기철이는 너무도 잘 알고 있었다. 어떻게 용준이를 남겨 두고 갈 수 있겠는가, 용준이가 가야 한다.

《내가 남을게 네가 가.》

《안돼 혁명의 명령이야》.

용준이는 억다짐으로 통신 편지를 기철의 손아귀에 쥐여 주고 나서 인츰 강아지를 껴 안고 신작로를 빠졌다.

(용준아! 용준아!)

기철이는 발구름 하며 속으로 애타게 불렀다. 뜨거운 불'덩이 같은 것이 가슴 한복판에 괴여 올랐다. 그러다가 손에 쥐여져 있는 통신 편지를 보자 기철이는 입술을 앙다물고 달리기 시작했다.

용준이는 가둑나무 가지에 얼굴이 긁히우는 것도 무가내고 이를 새려 물고 산허리를 바라 올랐다. 나무 잎들이 번개처럼 눈앞을 휙휙 지나 갔다.

《서라! 안 서면 쏜다.》

쪽제비 수염의 살기 돋친 소리가 산'기슭에서 울렸다. 이때에야 용준이는 발걸음을 늦춰 기철의 행방을 찾았다. 기철의 모습은 이미 아득히 먼 가로수 사이로 감실감실 보일 뿐이였다.

(됐어, 기철아 끝까지 련락을 보장해.)

이윽고 용준이는 뒤도 돌아 볼 새 없이 산마루로 치달았다.

휙휙 총알이 가둑나무 잎을 뚫으며 용준의 앞뒤에 와서 꼰쳤다.

《저것 보시오, 저놈이 강아지를 끼고 뛰오, 저 강아지를…》

엿장사의 초조해하는 목소리가 들렸다. 용준이는 달리면서 속으로 웃었다. 분명히 놈들은 자기 한테 눈'독을 들이고 있었다.

산마루에 올라 서자 용준이는 시원히 불어 오는 싱그러운 바람을 힘껏 들여 마시려고 잠시 멈춰 섰다. 숨이 턱에 닿고 가슴에서 쇠'내가 났다. 신작로 쪽의 산'기슭과는 달리 이쪽 산 허리에는 키를 넘는 속새풀이 자라 바다처럼 술렁이고 있었다. 이여 용준이는 속새풀 속에 안기우듯 몸을 내쳐 뛰였다.

용준이가 산'기슭에 다달았을 때 바로 한발 앞에 총알이 와 꽂혔다. 뒤'이여 놈들의 고아치는 소리가 산마루에서 들렸다.

(어떡한다!)

용준이는 속새풀 새로 놈들을 돌아 보며 속으로 생각했다. 이젠 더 뛸래야 뛸 수 없게 되였다. 저쪽 산마루에 올라 서려면 반드시 놈들의 총알에 맞을 것이였다.

(아니야 이러구 있을 수 없어, 뛰여야 해)

몸을 일으키려는 순간 용준이는 허벅다리가 선듯해지는 것을 느끼면서 도로 엎드렸다. 총알에 맞은 것이였다. 몸이 허전하고 갑자기 온 몸의 힘이 스르르 빠져 달아나는 것만 같았다.

그러나 놈들의 목소리가 가까이 울리자 용준이는 팔을 짚고 몸을 일으켰다. 그런데 뛸 수도 걸을 수도 없었다. 그러자 용준이는 속새풀 밑뿌리를 그러 쥐고 한 팔굽 한 팔굽 기여 갔다.

용준의 머리에는 통신 련락 임무를 맡고 나올 때 기철이와 나눈 이야기가 다시금 떠올랐다.

(아, 우리는 얼마나 빨찌산이 되고 싶었는가. 우리도 빨찌산 아저씨와 함께 총을 쥐고 싸울 것을 꿈꾸어 왔지, 근데 난…)

그러자 다음 순간 그의 눈앞에는 기철이가 통신 련락을 끝맺고 지도원 선생 한테 보고를 하고 있는 모습이 떠올랐다.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용준이는 자기도 모르게 부르짖으며 소리를 쳤다. 이때 거치른 손아귀가 그의 덜미를 잡았다. 쪽제비 수염이 표독스럽게 용준이를 노려 보고 있었다.

《여기 있소, 이 놈의 강아지.》

엿장사의 기뻐하는 목소리가 곁에서 들렸다. 뚱뚱보는 숨이 차서 거칠게 숨을 쉬며 말했다.

《빨랑빨랑 뒤져!》

이윽하여 엿장사의 당황해하는 목소리가 들렸다.

《아이구 없네, 이게… 아 벌써 요놈들이 끊었소, 이거 보소.》

쪽제비 수염도 황급히 그리로 뛰여 갔다. 이윽고 세놈은 소가 숨쉬듯 씩씩거리며 용준이 한테 다가 왔다.

《한놈은 어디 갔어!》

《…》

《영 어디 갔어!》

《…》

성미 급한 쪽제비 수염은 와락 용준의 멱살을 부쳐 잡고 다우쳤다. 그러나 용준이는 미소를 떠운 채 푸르고 푸른 하늘만 바라 보고 있었다.

그의 해쓱한 얼굴엔 혁명 임무를 완수한 기쁨과 자랑이 어려 있었다.

작은일이 빚어낸 큰일

—평북 신의주시 동명 중학교대 27분단에서—

글 최 옥 선
그림 리 전 영

어느 날 도화 시간이였습니다. 연필로 그림을 다 그리고 난 백 인옥이는 책가방을 분주히 뒤지다가 《이걸 어찌나 크레온을 깜박 잊고 왔네…》 하고 안타까워 하였습니다. 인옥이는 어떻게 하면 좋을가 하고 생각하다가 곁에서 크레온을 쓰고 있는 삼녀를 바라 보았습니다. 그러나 삼녀는 인옥이의 마음을 알은 척도 하지 않고 입을 오무린 채 크레온 색'갈을 번갈아 골라 가며 색칠만 하고 있었습니다. 인옥이는 삼녀에게 말했지요.

《삼녀야! 나 크레온 좀 쓰자 이다음에 나두 빌려 줄게.》

《어머니가 새로 사준 크레온이야 아껴서 쓰라구 그랬는데 뭐!》

삼녀의 말을 듣는 순간 인옥이는 얼굴이 화끈 달아 올랐습니다. 인옥이는 생각할 수록 분했지요.

이런 일이 있은 며칠 후 산수 실력 시험이 있었습니다. 한참 시험 문제를 풀다 삼녀는 그만 연필을 부러뜨렸습니다. 이 날 따라 삼녀에겐 연필이 한 자루 밖에 없었고 칼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곁에 앉아 있는 인옥이의 필갑에는 연필이 세 자루나 있었습니다.

《인옥아 나 연필 좀 쓰자 연필이 그만 부러졌어…》

이 순간 인옥에게는 그 전날 크레온을 안빌려 주던 삼녀의 일이 떠올랐습니다.

《넌 그전날 크레온 좀 쓰자는 것도 안 빌려 주구선…》

《싫으면 그만둬 않써.》 삼녀는 화를 냈습니다.

삼녀는 이날 뒤에 앉아 있는 영자에게서 빌려 썼습니다.

이때부터 삼녀와 인옥이의 사이는 벌어졌습니다.

그래 반에서 무슨 일을 할 때도 서로 외면하면서 같이 하려하지 않았고 유희를 하며 놀 때도 손도 같이 잡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의 사이가 이렇게 되자부터 반에는 쌀쌀한 기분이 돌았습니다. 그리고 반 사업도 잘 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분단에서는 화단을 만들기 위해 옛집터에서 벽돌을 파 오기로 하였습니다. 그래 반별로 갈라져서 일을 하게 되였습니다.

반에서는 일을 더 빨리하기 위해 집이 가까운 동무들이 도구를 가져다 2 명씩 짝을 지어 일하도록 하였습니다.

삼녀네 반 반장인 영란이는 삼녀와 인옥이가 일하면서 친해지도록 하기 위해 같이 일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런데 집이 가까운 인옥이가 도구를 가지고 있어 둘이는 같이 쓰지 않으면 안되게 되였습니다.

새침해 있던 삼녀는

《나더러 깍쟁이라고 하는 아이 것을 쓸가! 내 것을 가져다 쓰지.》 이런 생각을 하며 집으로 달려 갔습니다.

인옥이는 삐죽거리는 삼녀에게 더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 삼녀가 가는 것을 보고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분단에서 작업을 총화할 때까지도 삼녀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분단에서는 삼녀네 반이 제일 뒤떨어졌다고 총화하였습니다.

반 동무들은 모두 삼녀가 어디로 뺑소니쳤기 때문이라고 떠들석 하였습니다.

분단 동무들도 삼녀네 반이 한 마음이 되지 못하고 있다고 수근거렸고 분단 위원들도 삼녀하구 왜 같이 일하지 않느냐고 말하는 것이였습니다. 이런 때 삼녀가 도구를 들고 나타났습니다.

삼녀는 얼굴을 숙이고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자기의 쓸데 없는 고집이 반 전체에 큰 해를 끼쳤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반 동무들은 삼녀와 인옥이의 잘못을 고쳐 주기 위해 《세발 가진 황소》를 가지고 모임을 열기로 약속했습니다.

《세발가진 황소》 이야기는 부자 집 아이가 자기 곁에 앉는 가난한 집 아이에게 크레온을 빌려 주었다가 그림도 다 그리기전에 빼앗는 바람에 가난한 집아이는 세발 가진 황소를 그리고 말았다는 이야기 입니다.

반 모임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 있던 인옥이와 삼녀는 무언가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날 두 동무는 아무 말도 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자기를 도리켜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선뜻 잘못을 말하기가 부끄러워 서로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후 며칠이 지났습니다. 두 아이는 자기들이 저질은 일이 얼마나 큰 해를 주었는 가를 곰곰히 생각해 보기 시작하였습니다. 서로 잘못했다고는 말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서로의 마음 한구석에는 미안한 생각이 깃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반에서는 학교 운동장을 정리하는 일을 하게 되였습니다. 작업 도중 큰 돌이 나타나자 삼녀는 남먼저 자기가 날으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인옥이가 무거울텐데 같이 날으자고 하면서 삼녀를 도와 나섰습니다.

두 동무는 오래간만에 서로 바라 보며 방끗 웃었습니다.

칡 산

——황북 은파군 묘송 중학교 대에서——

글 최 죽산　　　　그림 정 승교

대 모임에서는 1,300 마리의 토끼를 기르는 데 필요한 사료를 해결하는 문제가 의논 되였습니다. 많은 아이들이 말했는데 그들은 한결같이 학교 주위에서 많은 사라구, 냉이, 민들레, 토끼풀 등 자연 사료를 얻는 한편 방목지도 만들고 풀밭도 만들자고 하였습니다.

《우리 지방에 제일 많은 풀은 토끼풀입니다. 학교 앞뒤의 넓은 곳에 토끼풀밭만 만든다면 10톤의 사료는 넉넉히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계순이의 말이였습니다. 그러자 미자가 일어섰습니다. 그는 계순이가 내 놓은 생각이 좋은 일이라고 찬성하고 나서 덧부쳐 이런 문제를 또 내 놓았습니다.

《나는 칡도 많이 심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지난해 우리가 심은 칡은 아다싶이 실패했습니다. 어째서 잘 자라지 않았는지 나는 늘 생각하군 합니다. 우리 고장에서만 칡이 안된다는 까닭은 없을 것입니다. 칡을 해결하는 것은 곧 알곡 사료를 해결하는 것과 같습니다. 말린 칡 1kg은 알곡 0.5 kg과 같습니다. 때문에 우린 이걸 연구해서 칡산도 만드는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미자의 이야기가 끝나자 맞받아 일어선 아이는 계삼이였습니다. 계삼이는 지난해 칡산을 만드는 일을 책임졌던 아이였습니다. 《칡이 사료로 좋다는건 우리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고장엔 칡이 안됩니다. 난 칡산 보다는 차라리 뚝감자 밭을 만드는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미자는 다시 일어나 칡산을 일굴 수 있다는 데 대해서 차근차근 설명하였습니다. 이야기를 듣고 난 아이들은 그제서야 칡산을 만드는 일은 연구할 만한 일이라고 고개를 끄덕이였습니다.

이날 모임에선 2,500평의 묵은 땅에 토끼풀밭을 만들며 묵은 터전 500평엔 뚝감자도 심고 학교 뒤'산에 있는 3,000평이나 되는 아까시아 밭도 잘 가꾸고 칡산도 시험삼아 1,000평을 만들기로 의논이 맞았습니다. 이날 대 모임에서는 미자의 연구를 대'적으로 도와 줄 것도 의논되였습니다.

대 모임이 있은 후 미자는 식물과 학습을 열심히 하면서 우선 칡이 잘 자랄 수 있는 흙에 대해서 연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는 방과후마다 현미경을 들여다 보며 흙을 연구했습니다. 식물 크루쇼크원들도 미자를 도와 나섰습니다.

일주일 만에 미자는 식물 크루쇼크원들과 함께 이 고장에도 칡이 자랄 수 있다는 것을 알아 냈습니다. 지난해 칡이 잘 안된 원인은 칡을 심은 땅이 식토이면서도 습기가 많았기 때문이였습니다. 그런데다가 칡뿌리도 자란지 겨우 1년 밖에 안되는 것을 심었기 때문이였습니다. 미자가 알아본 데 의하면 심는 칡뿌리는 적어도 2~3년씩 자란 뿌리래야 잘 산다는 것이였습니다. 때문에 이런 모든 것을 잘 생각해서 자랄 수 있는 식양토와 양토인 남산 기슭에 칡산을 만들면 틀림 없이 성공할 수 있다는 자신까지 얻게 되였습니다.

미자는 자기가 연구하여 알아낸 지식과 이때까지 책과 신문에서 본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아이들에게 하나하나 가르쳐 주었습니다.

대 벽보엔 미자가 어떻게 땅을 연구하였는가 하는 이야기와 함께 미자처럼 배운 지식을 실험을 통해 쓸모 있게 익히자라고 하였습니다.

이리하여 이곳 전체 소년단원들은 칡산을 일구는 일에 나서게 되였습니다.

벌써 첫재네 분단에선 풀밭과 칡구덩이에 줄 밑거름을 내고 있었습니다. 토끼풀 뿌리 캐려 서흥강 쪽으로 가는 분단도 있었고 칡뿌리 캐려 산으로 오르는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미라산 쪽에선 훈훈한 봄바람이 불어 왔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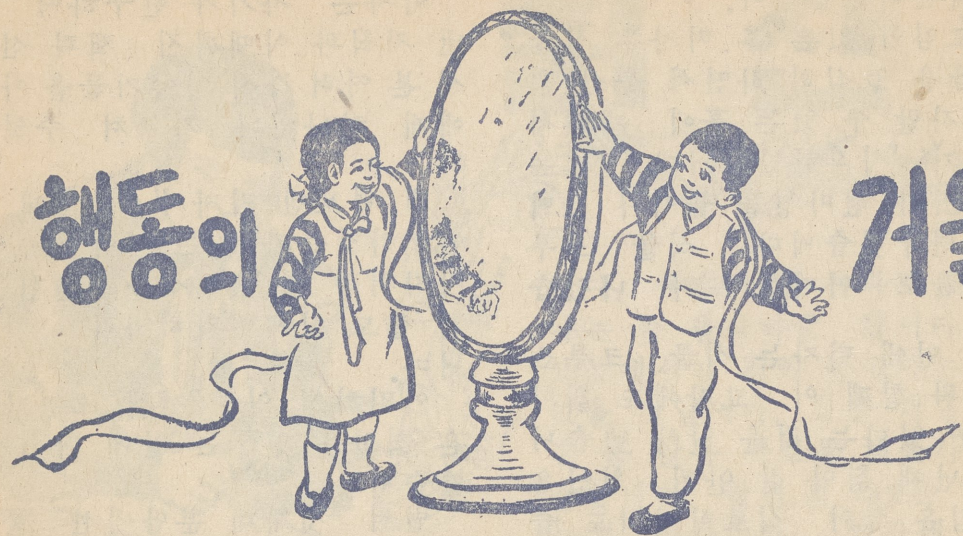
미자가 칡구덩이를 파고 있을 때 모래를 나르던 아이들이 갑자기 왁자지껄 떠들어 댔습니다. 《토끼 풀밭을 만드는데 하필 모래는 펄게 뭐냐, 이건 공연한 일이야》 순만이의 말이였습니다.

《순만아! 먼저번 식물 시간에 배우지 않았니? 모래를 펴면 식물이 태양열도 더 많이 받고 〈모세관〉 작용도 잘되여 그만큼 식물도 빨리 자랄 수 있다구.》 미자는 땅에 그림까지 그려 가며 이야기하여 주었습니다.

그때에야 순만이는 그만 수그러들었습니다.

아이들은 모두 자신심을 가지고 척척 구덩이를 팠습니다.

머지않아 좋은 칡넝쿨이 거미줄 같이 엉킬 것을 생각하며…

행동의 거울

례절 밝은 소년단원들

《이번엔 〈행동의 거울〉을 례절 밝다고 소문난 량강도 부전군 차일 중학교에 비쳐 보자, 자 돌린다.》

《야! 저 애들은 학교에 가는 길인가부지? 저기 마을 할아버지가 오신다.》

—할아버지 안녕하십니까?—

—오냐 학교를 가는 길이냐?—

《참 례절 밝은 애들이야, 저애들은 마을의 웃 어른들을 만나면 꼭꼭 인사를 한대.》

착한 소년단원

《자! 〈행동의 거울〉을 남쪽으로 돌려 황남도 송화군에 비쳐 보자, 그 곳에 착한 소년단원들이 많다니까.》

《웬 소년단원이 할머니하고 같이 가고 있어, 가만, 무슨 이야기를 하네, 좀 들어 보자.》

—할머닌 여기 첨 오시나요?—

—그렇단다. 그런데 넌 집이 어데냐?—

—요 아래'동네예요. 벌써 지났어요.—

—원 저런! 애야 그럼 길만 가리켜 주고 넌 돌아 가거라. —

—괜찮아요. 여긴 길이 많아서 삭갈릴 수 있거든요. 할머니 걱정 마세요. 제가 할머니 가시는 동네까지 모셔다 드리겠어요.—

—아유 기특두하지. 헌데 네 이름은 뭐냐?—

—송화 중학교에 다니는 리 정운이예요. —

아름다운 마음씨

《이번엔 자강도 쪽으로 〈행동의 거울〉을 비쳐 보자.》

《그래!》

《이게 어데냐?… 음, 전천군 전천읍이구나.》

《자동차 정류소인가부지…》

《저 차안을 비치자.》

—할머니 여기와 앉으세요.—

—고맙다. 같이 앉아 가자. 어서 앉아라.—

—전 서서 가겠어요. 할머니 편안히 앉으세요.—

《참 아름다운 마음씨야.》

《저애가 웃 어른을 존경하기로 이름난 장림 중학교 김 용숙이구나.》

친절한 동무들

《이번엔 〈행동의 거울〉을 어데로 돌릴가?》

《함북 쪽으로 돌리자!》

《청진시구나, 야 이봐 한떼의 소년단원들이 온다. 이애들의 행동을 살펴 보자.》

《저애들 앞에 마주 오는 아주머니를 좀 봐, 어린애를 업고 무거운 짐을 이고 오는구나.》

—아주머니 그 짐을 인줘요. 우리가 들어다 드리겠어요. —

—괜찮다. 어서들 가거라.—

—줘요, 네—

《아, 저애들은 천마 중학교에 다니는 김 승일, 김 동구, 리 추연 동무들이구나!》

《어머니 학교에 다녀 오겠습니다.》

《이번엔 개성시 고려 중학교 제 5 분단 배 정옥 동무네 집을 비쳐 보자.》

《그래, 아마 지금 쯤은 학교 갈 차비 하느라고 서둘고 있을 거야.》

—어머니 학교에 다녀 오겠습니다.—

—오냐 잘 다녀 오거라.—

《방금 떠나는 참이구나, 정옥 동무는 학교로 갈 때에 반드시 어머니에게 인사하고 떠나고 돌아 와서도 〈어머니 학교에 다녀 왔습니다.〉고 인사한다는 거야.》

《그 뿐이라구 심부름을 가고 올 때도 어머니에게 인사를 한다지 않던.》

아빠트 마을의 소년단원들

—황북 송림시 철산 중학교대 제 5 분단 제 3반에서—

성진이가 반장으로 된 후부터 이반에서는 유쾌하고 보람있는 반 생활의 하루하루가 지나갑니다.

얼마전 까지만 하여도 반 생활이 잘 되지 않아 반 동무들은 학교에서 집으로 돌아 오기만하면 아버지, 어머니가 공장에서 돌아오실 때까지 저마다 궁금한 시간을 보내군 하였습니다. 그리고 주익이와 선화 동무들 처럼 제 멋대로 노는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이런 일들은 성진이가 반장이 되기 전에 있은 일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다릅니다. 반 생활에 재미를 부치지 않던 주익이와 선화 동무들도 학교에서 돌아 오면 원욱이네 집으로 오군합니다. 원욱이네 집은 소년단 반실이니까요.

아이들은 학교에서 돌아오면 그날 배운 숙제부터 하군합니다. 제일 어려운 산수 과목은 수영이가 도와 줍니다. 복습이 끝나면 어려운 과목을 쉽게 공부한 경험도 서로 이야기하지요. 그리고는 집에 돌아 가 석탄도 이기고 물도 길으며 공장에서 돌아 온 어머니가 곧 저녁 식사를 지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준비들을 합니다.

반장인 성진이는 매주 일요일마다 반원들과 한자리에 모여 앉아 지난 한주일 반에서 한 일들을 이야기하며 다음 한주일 반에서 할 일들에 대하여 의논하고 계획을 세웁니다.

성진이가 가지고 있는《반 일지》에는 이렇게 적혀져 있었습니다.

× ×

1960년 1월 31일 —반 모임을 가지고 다음 주일에 할 일들을 의논하였다. 그리고 오후엔 순희 동무네 새 집들이를 도왔다. 순희 어머니는 고맙다고 우리 손목을 잡고 기뻐하시였다.

2월 1일 월요일 —《소년단》잡지에 있는《빨찌산의 딸》을 읽고 이야기 모임을 가졌다. 수영이가 읽고 이야기하였다. 이날 주익이는 지난날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는 이야기를 하였다. 반 동무들은 모두 기뻐하였다.

2월 3일 수요일 —동무들의 제의로 어머니가 다니는 직장을 가보았다. (황해 제철소 부식물 가공 직장) 어머니들은 열심히 일하고 계셨다. 이날 우리들은 저마다 어머니들을 잘 도와 나설 것을 마음속 깊이 생각하였다. 수영이 어머니는 일을 잘 해서 도일보에까지 났고 이 직장 책임자로 되였다.

2월 4일 목요일 —이웃 팍 할아버지를 찾아가 옛이야기를 들었다.

2월 6일 토요일 —목욕하러 갔다. 저녁엔 가야금 타는 련습을 하였다.

× ×

이것은 지난 2월 첫째번 주일에 반에서 한 일들이였습니다.

이들의 생활은 이것 만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재미 있고 훌륭한 일들을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느날 식물 시간이였습니다. 주익이는《종자 발아》에 대한 선생님의 물음에 대답 못하고 홍당무가 된 채로 주저 앉고 말았습니다. 반 동무들은 막 안타깝기만 하였습니다.

학교에서 돌아 온 반 동무들은 주익 동무의 식물 학습을 어떻게 도울 것인가를 의논하였습니다.

아이들은 주익이랑 함께 식물 교과서와 학습장을 가지고 협동조합 온실로 찾아 갔습니다.

온실에서는 사철 로동자 아저씨들에게 채소를 보내기 위하여 오이, 가지, 파 등 여러 가지 채소들이 싱싱히 자라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식물 시간에 배운 문제와 주익이가 대답 못한《종자 발아》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아저씨와 이야기하였습니다.

다음날 식물 시간이였습니다. 주익이는 발아에 대한 문제를 그림까지 그려 가며 훌륭히 이야기하였습니다.

이 밖에도 이들은 공부가 끝나면 공장 누나들에게서 가야금 타는 법도 배우며 바느질, 뜨개질 같은 것도 열심히 배우고 있습니다.

이렇듯 성진이네 반 생활은 보람있고 즐겁기만 합니다.

반 생활을 재미있게 하는 성진이네 반 동무들은 분단과 대에서 늘 칭찬을 받는답니다.

일동—할아버지 안녕하십니까?

척척 할아버지—오냐, 그 동안 공부 잘 했느냐? 그래 이번엔 무슨 문제를 가지고 왔냐?

금옥—우린 전기가 어떻게 일어 나는가 하는 것을 알고 싶어 왔어요.

척척 할아버지—전기를 어떻게 일쿠는가구 허허… 아주 흥미 있는 문제이군. 그런데 너희들 전기가 우리 인민 생활에 어떻게 씌여지는지 아느냐?

금옥—우리들에게 밝은 전기'불을 주고 또 공장과 농촌에서 기계를 돌려 일을 헐하게 해줍니다.

척척 할아버지—그렇다. 전기는 못하는 일이 없다. 그러기에 지금 당에서는 일을 헐하고 쉽게 하기 위해서 나라를 전기화하자고 하지않니. 그럼 전기란 무엇인가를 알기 위해서 간단한 실험을 해 보자, 자 모두들 종이를 잘게 찢어서 앞에들 놓아라, 그리고 만년필을 꺼내 들어라. 다 됐느냐? 그럼 만년필을 머리칼에 비비다가 종이 쪼각에 가져다 대 보아라.

금옥—할아버지! 이것 보세요. 만년필이 자석처럼 종이 쪼각을 끓어 당겨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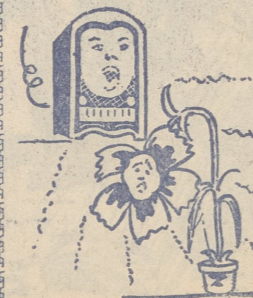
척척 할아버지—바로 그것을 전기적 현상이라고 한다.

정옥—할아버지 그럼 전기를 얻는 방법을 자세히 이야기해 주세요.

척척 할아버지—내 이야기를 듣는 것보다 실험실에 가서 너희들이 직접 전기를 일쿠어 보는 것이 좋겠다. 모두 나와 같이 실험실로 가자.

일동—좋습니다.

척척 할아버지—그럼 실험 도구 함에서 말굽자석 한개와 코일을 가져 오너라. 그리고 둥굴고 긴(7cm정도)쇠도 준비하구, 다들 준비 됐느냐?

일동—네!

척척 할아버지—일을 시작해 보자. 먼저 둥군 쇠에 코일을 감고 첫 끝과 마지막 끝 머리에 손전지의 전구를 련결시켜 놓아라. 다음으로 그것을 자석 안에 넣고 돌릴 수있게 쇠구멍에 도루래를 만들어라, 다 됐으면 전동기로 1분 동안에 800~1,000 회의 속력으로 재빨리 돌려들 보아라.

금옥—앗, 전기가 왔다. 야—

척척 할아버지—우리들이 쓰고 있는 전기는 모두 이런 방법으로 일쿤단다. 전기를 많이 얻기 위해서 발전소들에는 타빙을 만들어 놓고 그 타빙을 물이나 바람의 힘으로 돌린단다. 이것을 수력, 풍력 발전소라고 하지, 그리고 물이나 바람 이외에 석탄으로 물을 끓여서 증기의 힘으로 전기를 얻어 내는 화력 발전소도 있단다.

정옥—할아버지 우리는 신문이나 라디오에서 원자력 발전소라는 말을 듣는데 그것은 무엇인가요?

척척 할아버지—화력 발전소에서는 석탄으로 불을 때여 증기를 얻지만 원자력 발전소에서는 석탄 대신 우라늄이라는 원소로 물을 끓여 증기를 얻는단다. 이 우라늄 1g만 가지면 석탄 3t을 때서 얻는 전기를 일굴 수 있단다. 이것을 원자력 발전소라고 한다. 인제 머지 않은 앞날에 우리 나라에도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할 수 있단다. 너희들은 다 그런 곳에서 일할 주인들이다. 모두 학교의 크루쇼크에 참가해서 전기에 대한 실험 실습도 하고 여러가지 창안품들도 만들어 보면서, 전기에 대한 지식을 더 많이 배워라.

영자—할아버지, 전기는 우리들이 집에서 쓰는 전등, 전기 다리미, 라디오 외에 또 어떤데 쓰이나요?

척척 할아버지—전기의 힘으로는 못하는 게 없지. 건설장에서 무거운 짐을 척척 들어 올리는 기중기도 전기의 힘으로 움직인단다. 수풍에는 1만 3천명의 사람이 힘을 합쳐야만 들수 있는 무거운 것을 손쉽게 드는 기중기가 있다.

또 전기로로는 쇠를 녹일 수도 있단다. 성진 제강소를 비롯해서 우리 나라의 제강소들에서는 석탄 대신 전기로 쇠를 녹이고 있단다. 이것은 석탄 보다도 손쉽게 빨리 녹일 수 있고 사람의 힘을 덜 들인단다. 고원과 신성천 사이 기차를 타본 동무들은 알겠지만 여기는 전기 철도가 놓여 전기의 힘으로 기차가 움직인다. 높은 고개'길이여서 보통 기차는 무거운 짐을 싣고는 끌수 없는 곳이지만 전기 기관차는 헐하게 달린단다. 방직 공장에서 천을 짜는것도, 공장에서 기계를 만들어 내는 것도 모두 전기의 힘으로 한다. 전기기관가 하는 일을 이야기 하자면 끝이 없다. 이렇게 전기는 우리의 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귀중한 자원이다.

금옥—알았어요. 우린 돌아가면 크루쇼크에 참가하여 전기에 대한 지식을 더 많이 배우 겠어요. 그리고 귀중한 전기를 절약하기 위해서 힘쓰겠어요.

보람찬 나날

지금 일본으로부터는 계속 수 많은 조선 사람들이 그리운 조국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중에는 우리 어린이들도 많습니다. 이미 돌아 온 동무들은 선생님들과 동무들의 따뜻한 도움을 받으면서 행복하게 공부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배를 타고 조국으로 돌아 와서 평양 외성 고급 중학교 초급반 제 2학년에서 공부하고 있는 오 화자 동무는 벌써 소년단에 입단했습니다. 조국의 품에 안겨 행복하고 보람찬 나날을 보내고 있는 화자 동무의 생활을 찾아 보기로 합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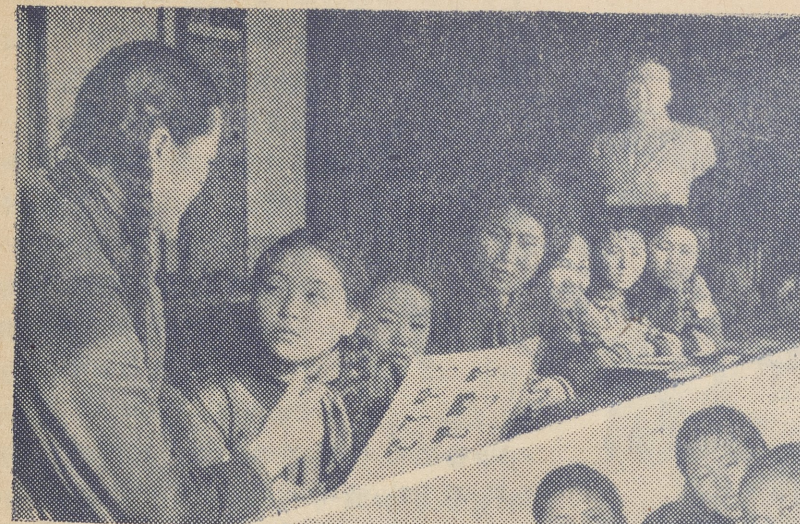
사진 촬영 리 종록

일본에서 돌아 오는 동무들에게 선물로 주겠다고 벌써 오래 전부터 교과서며 학습장, 책가방을 준비하고 기달려 온 제1분단 동무들은 화자 동무를 반가이 맞았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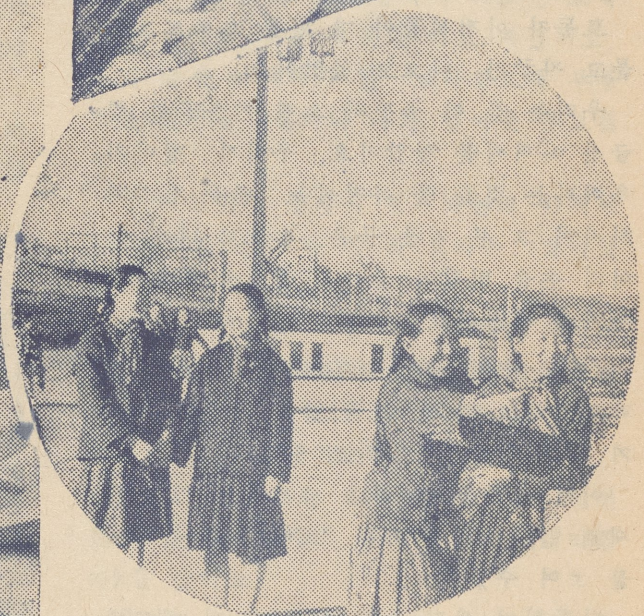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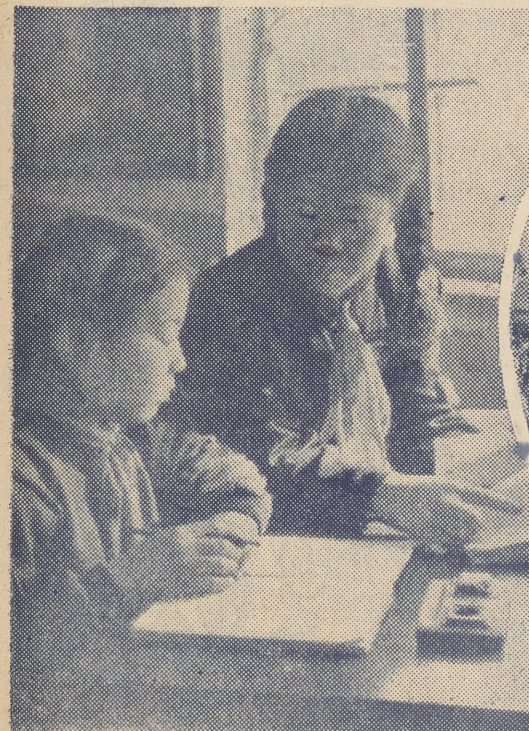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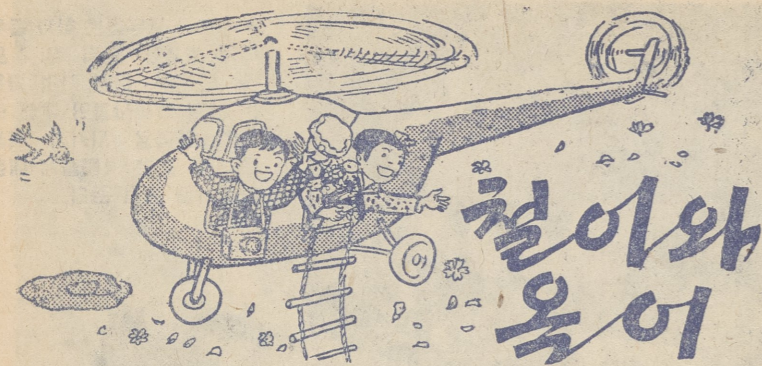
←—분단에서는 열성자 모임을 열고 화자 동무의 입단 준비를 도울 데 대하여 의논하였다.

《내가 화자 동무에게 소년단원의 의무와 권리를 가르쳐 주겠다.》

《소년단의 상징에 대하여 내가 가르쳐 줄테야.》

동무들은 저마다 자기가 돕겠다고 말했다.

←—분단 동무들은 화자 동무에게 조국을 찾기 위해 모든 난관을 이겨 가며 싸워 온 항일 빨찌산들의 투쟁 이야기, 조국을 지키기 위해 용감히 싸운 영웅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 준다.

화자 동무는 벌써 노래 《만경대》도 곧잘 부른다 ⟶

동무들은 저마다 화자 동무의 학습을 돕겠다고 찾아 온다. ↓

↑일요일이면 분단 동무들은 모란봉으로, 청년 공원으로, 대동강 유보도로, 해방 투쟁 박물관, 력사 박물관으로 화자 동무를 데리고 다니며 구경시켜 주고 있다.

철이와 옥이

옥이—농촌을 기계화 하자면 많은 농기계를 농촌에 보내야 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린 뜨락또르를 많이 만들어 내는 기양 기계 공장을 찾았답니다.

평양에서 서쪽으로 얼만쯤 나르니 하늘을 치솟듯 높이 솟은 굴뚝이 나타났어요. 여기가 바로 이름난 기양 기계 공장이였지요.

마당에 들어 섰을 때였지요.

요란한 뜨락또르 엔징 소리와 기계 소리가 들려 오지 않아요.

로동자 아저씨들이 다 만든 뜨락또르를 몰고 자꾸만 나오고 있었어요.

우리는 곧 이 공장의 오랜 기능공인 김금산 아저씨를 찾았지요. 우리가 철이와 옥이라는 것을 안 아저씨는 매우 반가와 하시며 그 큰 기름 묻은 손으로 나와 철이의 손을 번갈아 잡아 흔들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지금 우리 공장 로동자들은 한대의 뜨락또르라도 더 빨리 더 많이 농촌에 보내기 위해 힘차게 일하고 있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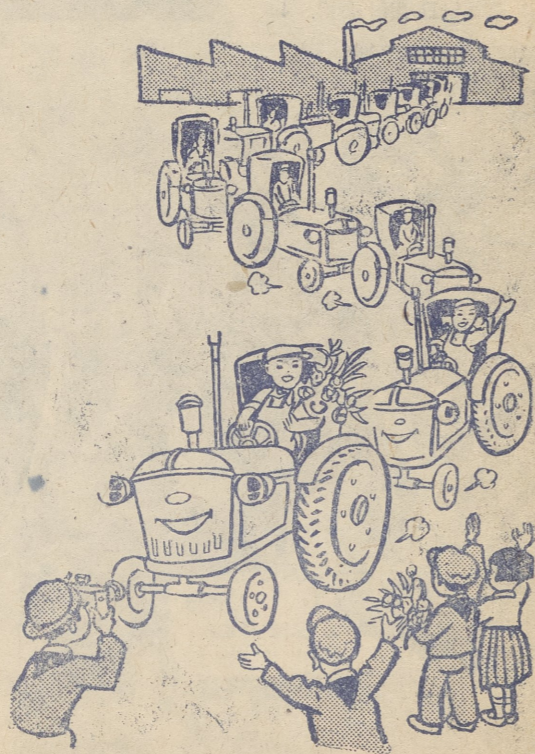
이런 말씀을 한 다음 아저씨는 요즈음 새로 만든 《38축 자동 보링기》라는 기계를 보여 주었어요.

단추처럼 생긴 스위치를 누르자 엔징에 구멍을 뚫으는 드릴들이 오른쪽에서 23개, 왼쪽에서 15개가 천천히 다가 오더니 4분도 못 되여 38개의 구멍을 다 뚫고 저절로 물러서 멎는게 아니겠어요.

그런 다음 아저씨는 이야기를 계속하는 것이였어요.

《이 기계는 누구나 손쉽게 다룰 수 있는 것인데 이전보다 열 두배나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거든, 우리 나라에서 처음으로 만들어 낸 이 기계에는 로동자 아저씨들의 귀중한 땀과 지혜가 깃들어 있단다.

매일 12대 이상 씩의 뜨락또르를 만들어 농촌 기계화를 빨리 앞당길 것을 결의해 나선 로동자 아저씨들의 하나로 뭉친 마음은 이 기계도 짧은 두달 동안에 만들어 냈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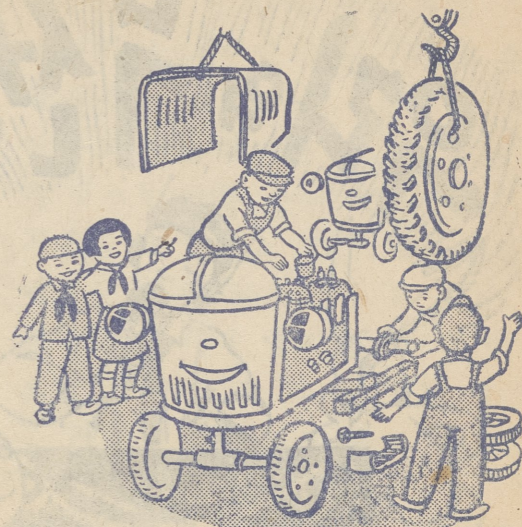
조립 직장에 들어 서니 서로들 이마를 마주대고 부속품들을 맞추고 있었고 다

마춘 엔징에서는 발동 시험들이 진행되고 있었지요.

로동자 아저씨들의 구리'빛 얼굴 마다에 선 농촌 기계화를 위하여 한초를 아껴 가며 싸우는 그분들의 붉은 마음을 읽을 수 있었어요.

우리는 여기서 이 직장 민청 위원장 백만기 아저씨를 만났지요. 아저씨는 친절히 우리를 데리고 다니면서 공장 안을 샅샅이 구경시켜 주었답니다. 기계를 척척 맞추는 아저씨들의 빠른 솜씨는 참으로 놀라웠습니다. 아저씨들의 손이 움직일 때마다 뜨락또르들은 눈에 뜨이게 완성되여 갔지요. 우리들은 너무도 좋아서 시간 가는 것도 잊고 아저씨들이 작업하는 모습을 지켜 보았지요.

백 만기 아저씨는 우리들에게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들려 주었어요.

《우리 공장에서는 지난해만 해도 84대의 뜨락또르를 만들어 농촌에 보냈단다. 그런데 새해에 들어 와선 벌써 200대나 되는 뜨락또르를 만들었지, 금년에 우리는 3,000대도 더 넘는 뜨락또르를 만들어 낸단다.

우리 나라의 농촌 어느 곳에 가나 뜨락또르가 줄지어 달음칠 그때는 멀지 않았어.》

아저씨의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조립 직장을 나선 우리는 사회주의 조국에 태여난 끝없는 행복감을 다시금 느꼈어요.

마지막으로 우리는 농촌으로 나가기 위하여 모든 준비를 다 갖추고 줄지어 서 있는 뜨락또르 곁으로 갔어요.

아저씨들은 조립 직장에서 나오는 뜨락또르 마다에 푸른 색칠을 하고 계셨어요.

김 금산 아저씨가 한 뜨락또르에 부릉부릉 발동을 걸더니 나와 철이를 부르겠지요.

무슨 일인지 몰라서 망서리는데 아저씨는 뜨락또르를 한 번 타 보라는 것이였어요.

철이는 어찌도 기뻤던지 기다릴 사이도 없이 성큼 뜨락또르에 올라 탔지요. 번쩍번쩍 빛나는 새 뜨락또르에 올라 앉으니 얼마나 기분이 좋았는지 몰라요.

이리하여 우리는 뜨락또르에 앉아 몇번 돈 다음 아저씨에게 인사를 하고 《헤리곱타》를 탔어요.

우리는 머지 않은 앞날에 우리 나라 벌판을 달리는 숫한 뜨락또르들을 눈앞에 그려 보며 이 공장을 떠났지요.

가래나무 산을 만든다

여보세요. 소년단 편집부입니까?

자강도 우시군 시하 중학교《록화 근위대》대장 김 룡운이 말합니다.

우리 학교에서는 올 봄에 20 정보(1정보는 3,000평)의 경제림을 일굽니다. 이제 우리들이 20 정보의 경제림을 일쿠기 위해서 하고 있는 일들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학교 가까이에 그렇게 산이 많은가구요? 그럽요. 우리 마을은 앞뒤가 모두 산으로 빙 둘러 싸인 그런 고장이지요. 우리 고향은 참 경치 좋고 살기 좋은 고장입니다.

먼저 우리《록화 근위대》원들은 학교의 경제림을 만드는데 알맞는 산을 고르기 위해서 학교 가까이에 있는 산들을 모두 돌아 보았습니다.

그날 산에 올랐던 동무들은 가래나무와 산실과 나무를 보고 모두들 분해했습니다. 왜냐구요?

글쎄 열매를 따느라고 나무아지를 꺾고 넌출을 끊고 해서 가래나무와 여러 가지 실과나무들이 모두 병신이 되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대위원회에서는 무엇보다 소년단원들께 나무를 사랑하는 마음을 키워 주기 위해서《가래나무의 하소연》이라는 제목으로 이야기 모임을 가졌습니다. 동무들은 나무를 심는 데만 그치지 말고 심은 나무를 정성스레 가꾸어 주자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귀중한 나무들을 함부로 꺾지말며 학교 경제림을 더 잘 만들고 가꾸자고 말했습니다.

우리들은 학교 경제림을 학교 앞산에 만들기로 했습니다. 얼마나 큰 산인가구요? 높이가 약 200m가량 되는 산입니다. 삼각자 비슷이 세모난 둥실한 산인데 면적은 6만평 가량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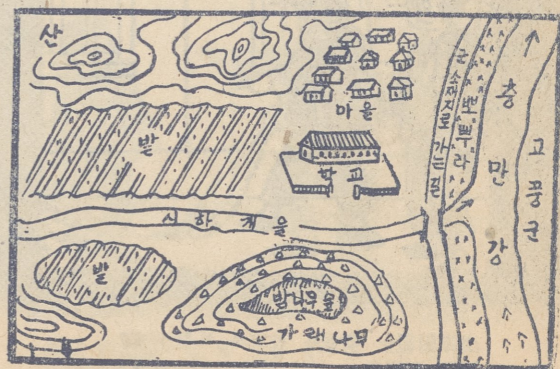
지금 이 산마루에는 참나무 숲이 있습니다. 그리고 산 허리와 산'기슭에는 쓸모가 적은 여러가지 나무들이 가득 찼습니다. 우리는 산'기슭에서부터 산 허리까지 몽땅 가래나무를 심으려고 합니다. 한 4만 그루 심을 작정입니다. 묘목이 그렇게 많이 있는가구요?

우리는 묘목을 심지 않고 가래나무 종자를 직접 산에다 심겠습니다. 그럼요. 가래나무 씨는 있습니다. 작년 가을에 우리들이 딴 종자가 660kg 가량이나 되니까요. 우리들은 올 봄에 심으려고 씨가 변하지 않도록 땅 속에 묻어 두었댔습니다.

나무를 심는 데 쓸 도구들도 모두 준비 됐습니다. 우리들이 모은 파철로 호미 100가락을 만들었지요. 그리고 종자를 담아 가지고 다닐 그릇도 80개나 만들었습니다. 지금 땅이 녹은 양지 바른 남쪽에는 벌써 심습니다. 그리고 모은 거름을 모두 산으로 나르는 일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매 포기마다 3kg씩 줄 수 있게 120t의 부식토와 썩은 나무 잎도 장만했습니다.

분단들에서는 나무를 어떻게 심으면 한 그루도 죽이지 않겠는가를 의논도 했습니다. 작년 봄에도 나무를 많이 심었지만 죽은 나무가 많습니다. 이것은 우리들이 나무를 정성들여 심지 않았고 심은 후에도 잘 돌보지 않은 탓이였습니다. 그래서 올 봄에는 자기가 심은 나무를 자기가 책임지고 끝까지 자래우도록 분단별로 구역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분단이 나무를 잘 길러 내는가를 서로 내기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분단들에서는 서로 자기 분단이 이기겠다고 야단입니다. 제 1 분단 같은데서는 다른 분단 보다 두곱이나 거름을 모았고요 또 어떤 분단들에서는 산림 보호원인 김 도준 아저씨를 모셔다 종자를 어떻게 심으면 잘 나오고 또 잘 자랄 수 있는 가하는 이야기도 듣고 있습니다.

우리는 뽀뿌라 나무도 1만 그루를 심습니다. 학교 앞 충만강이라는 큰 강'가에 심고 있습니다. 묘목은 나무 아지를 따다가 움에 묻어 두었다 심습니다. 경제림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들이 하고 있는 이러한 일들은 우리들이 식물에서 배운 지식을 실험하고 실습하는데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앞으로도 경제림을 가꾸면서 우리의 식물 지식을 더욱 넓히는데 힘 쓰려고 합니다.

오늘은 이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요.

글 김정숙　　　　그림 허능택

부산 부두 한 가장자리 조용한 곳에 한 소년이 앉아 있었습니다.

한없이 넓은 바다와 푸른 하늘이 하나로 잇닿은 수평선을 바라 보는 그의 눈은 웬일인지 슬퍼 보였습니다.

하염없는 시름에 잠겼던 그 소년은 두 무릎 새에다 얼굴을 파묻고 흐느껴 울었습니다.

한참 울던 그는 벌떡 일어 나더니 넋잃은 사람처럼 《엄마! 엄마! 나도 같이 죽겠어요!》 하고 웨치며 무엇을 잡으려는 듯이 허공을 움켜 쥐며 물 속으로 들어 갈려 했습니다.

아주 위험한 순간이였습니다.

아까부터 이 소년의 행동을 눈여겨 보던 부산 부두 로동자 동철이라는 사람이 소년의 팔을 날쌔게 잡아 당겼습니다.

이리하여 물에 빠져 죽으려던 김 영식 소년은 구원 됐습니다.

약한 몸에다 몹시 흥분돼서 바들바들 떠는 영식이를 자기 품에 꼭 안고 동철 아저씨는 부산 부두 가까이 있는 자기 집으로 갔습니다.

영식이를 아래'목에 눕혀 놓고 머리를 쓰다듬어 주면서 동철 아저씨는 영식이의 마음을 진정시키려고 애썼습니다.

한참 후에 동철 아저씨는 영식에게 왜 물에 빠지려고 했는가고 물었습니다.

×　　　×

영식 아버지는 부산 부두 고무 공장에 다녔는데 너무나 고된 로동에 병이 들었습니다.

늑막염이라는 진단을 받은 영식 아버지는 공장에서 쫓겨 났습니다.

돈이 없어서 입원은 고사하고 약 한 봉지 쓰지 못한 영식 아버지의 병은 점점 심해 졌습니다.

영식이 어머니는 입원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부산 서내에 있는 어느 회사 사장네 집에 가서 식모겸 유모 노릇을 했습니다.

그때 영식에게는 겨우 나서 여덟달 밖에 안되는 어린 동생이 있었는데 어머니는 아버지의 약값을 마련하기 위해서 사장네 아이에게 젖을 먹이고 영식이 동생에게는 죽물을 끓여 먹이게 했습니다. 이때 영식이는 국민 학교 2학년이 였는데 월사금을 내지 못해서 학교에서 쫓겨 났습니다. 영식이는 밤마다 어린 영준이를 업어 재우고 아버지의 병 시중을 들었습니다.

《그때 우리 어머니는 사흘에 한 번씩 집에 오군 했어요. 주인집 마나님이 자꾸 왔다갔다 하지 말라구 그랬대요… 그래도 우리 영준이는 순해서 밤에 잘 잤어요. 나는 어머니가 오는날 밤이면 영준이를 업고 멀리까지 마중 나가군 했어요.》

동요

비단 나무

정 명 걸

휴가 받고 돌아온 누나가 사온
비단 치마 비단 저고리 갈아 입고서
쓸어보고 만져보고 옥이는 방긋
굽어보고 돌아보고 좋아라 깡충…

《옥아 그래 비단 옷이 그렇게 좋냐》
《좋구말구 좋구말구 이것 좀 봐요
매화보다 란초보다 더욱 곱거든
보드롭긴 새털보다 더 포근하구…》

생글방글 누나도 쓸어보시며
《그렇게도 좋거들랑 자꾸 짜주마》
옥이는 너무 좋아 손'벽을 치며
《언니 정말 자꾸 많이 짜보내줘요》

《나무만 자꾸 심어 자꾸 키우렴
비단을랑 우리들이 얼마든 짤게—》
옥이는 깜박이다 고개 갸우뚱
《아니 그래 이거 정말 나무로 짜나》

《그렇단다 들에 심은 뽀뿌라나무
50년만 자라면 비단이 천필》
옥이는 엄마 손을 잡아 흔들며
《래일부터 나무물은 내가 줄테야》

소년단원— 문순아 저것도 치워야지?
분단 위원장— 그건 놔둬 2분단거야!

대위원장—1분단에선 왜 청소를 안 해요?
분단 위원장—!?

분단 위원장—넌 왜 이걸 보구두 가만 있니?
소년단원—이건 2분단 건데 뭐!

이렇게 말하는 영식이의 얼굴에는 눈물이 계속 흘러 내리고 있었습니다.,

영식이 어머니가 유모노릇을 해서 버는 돈으로는 아버지 병치료는 고사하고 식구들의 입에 풀칠하기도 어려웠습니다.

영식이 아버지는 작년 늦은 가을 어느 날 밤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며칠이 지나서 어머니는 사장네 집 유모노릇도 못하게 되였습니다. 아이가 퍼그나 컸기 때문에 이제는 유모가 필요 없다는 것이였습니다.

영식이 어머니는 일자리를 구하려고 이튿날부터 부산 시내 공장마다 다녀 봤지만 공장주들은 어린애가 있기 때문에 못쓰겠다고 거절했습니다.

영식이 어머니는 하는 수 없이 비지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매일 밤 늦게까지 콩망질을 해서 새벽부터 비지를 팔러 부산 시장에 나가군 했습니다.

추운 바람에 떨면서 해질 때까지 비지 함지를 지켜 앉아야 다음 날에 비지를 만들 콩값이 나오고 비지 두서너 사발씩 남군 했습니다.

그것으로 영식이와 영식이 어머니는 목숨을 겨우 이어 갔습니다.

영식이는 언제나 학교에 다니고 싶은 생각이 간절 했습니다.

하루는 영식이가

《어머니 나는 구두 닦기를 해서 월사금을 벌면서 공부 하겠어요!》

하고 말했더니 어머니는

《애야 구두 닦기도 열 대여섯 나야 한단다. 열살 난 네가 무슨 돈벌이를 하겠니…》 하고 얼렀습니다.

《옆집 경호도 열살인데두 구두 닦기를 하는데요…》

영식이는 이튿날부터 구두 닦기를 떠났습니다. 영식이는 어떻게 해서든지 공부를 많이 해서 어머니를 고생시키지 않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몇달이 지난 어느날 밤이였습니다.

영식이는 다른 날보다 좀 저물어서 집에 돌아 왔으나 어머니는 아직 오시지 않았습니다. 밖은 점점 캄캄해 오는데도 어머니는 오시지 않았습니다. 기다리다 못해 영식이는 시장으로 달려 갔습니다.

《그날 경찰놈하고 미군 헌병놈이 시장에 나와서 공연히 생트집을 잡아 사람들을 못살게 굴더니 나중엔 우리 어머니헌테까지 와서 야단을 쳤어요.

놈들은 구멍가개도 미국사람 보기 흉해서 막 허물어 버리는 판인데 비지 장사가 다 뭔가 하면서 우리 어머니를 막 차고 때리고 했어요.

내가 시장에 갔을 때 놈들은 쓰러진 어머니 우에다 거적떼기를 씌워놓았어요. 나는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어서 리야까'군을 불러서 어머니를 태워 집에까지 왔어요. 집에 와 보니 어머니 옆구리에는 시퍼런 멍이 들어 있었어요.

어머니는 그날부터 열을 내면서 앓다가 밥 한 그릇 변변히 못 잡수시고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애기는 어머니 돌아가신 후 닷새 만에 죽었는데 옆집에 살던 경호 어머니가 공동 묘지에 파묻었어요…》

흐르는 눈물을 주먹으로 씻으면서 영식이는 계속 말했습니다.

《아저씨! 나는 미국놈들이 보기 싫고 무서워 죽겠어요. 미국 병사 하우쓰란 놈은 매번 구두를 닦고도 돈을 내지 않아요. 그래 구두 닦은 돈을 내라고 했더니 나를 막 때리지 않겠어요. 옆에 사람들이 말리지 않았더라면 나는 오늘 죽었을 거예요.

아저씨! 나는 어머니, 아버지 없는 세상에서 더 살고 싶지 않아요. 난 죽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말하는 영식이는 몸을 부르르 떨었습니다.

여기까지 이야기를 듣고 난 동철 아저씨는 깊은 한숨을 내 쉬였습니다.

《죽기는 왜 죽어! 죽는 사람은 바보야! 아저씨는 너보다 더 고생하면서도 죽지 않았다. 우리는 하루 속히 미국놈들을 이 땅에서 몰아 내야 한다. 그래야만 너도 북반부 어린이들처럼 마음 대로 공부할 수 있게 된단다. 북반부에는 너처럼 고생하는 어린이들이 하나도 없어…》

영식이는 마음 대로 공부할 수 있다는 말에 귀가 버쩍 트이는 것 같았습니다.

영식이의 얼굴에는 갑짜기 생기가 도는것 같았고 창백했던 량볼엔 붉은 빛이 어리는 듯 했습니다.

동철 아저씨는 영식이를 꼭 껴 안고 머리를 쓰다듬어 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캄캄한 밤이 새면 밝은 아침이 오듯이 너도 행복하게 살 날이 꼭 올 것이다. 우리는 굳세게 살자! 응! 영식아! 알았지?》

동철 아저씨는 영식이를 더 힘 있게 껴 안으면서 영식이 볼에 자기 볼을 비볐습니다.

이것을 아십니까?

세계에서 제일 큰도서관

모쓰크바 레닌 도서관에는 160개 나라 말로 출판된 2천만부의 책이 있답니다. 이 도서관 책장의 총 길이는 220키로 메터나 됩니다. 이것은 세계에서 제일 큰 도서관입니다.

한 개의 나라보다 더 큰 운동장

모쓰크바의 루즈니끼에 있는 레닌 운동장의 총면적은 모나코라는 나라의 면적보다 더 큽니다.

오락 놀아 보세요!

글 신 순기

나무 토막재 주

도 구

구불게 구멍 뚫은 나무 토막 1개

노끈 한발

노는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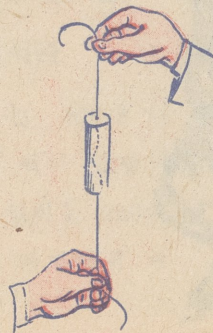
이 재주는 간단하면서도 여러가지로 재미 있게 할 수 있다. 끈을 팽팽하게 아래 우에서 잡아 당기면 나무 토막은 끈 가운데 어디서나 설 것이며 끈을 늦추어 주면 나무 토막은 흘러내릴 것이다. 이것을 리용해서《내려갓!》《섯!》《두번 쉬여갓!》하는 등으로 적당하게 자기 혼자서도 할 수 있으며 동무와 같이 할 수도 있다.

막대기 건느기

도 구

쎄멘트 포대 종이로 만든 봉투 2개

먹칠한 막대기 1개

막대기에 씌울수 있는 종이 껍질 1개

노는 방법

미리 책상 우 량쪽에 봉투를 벌려 놓고 먹칠을 한 막대기에 종이 껍질을 씌운 다음 그것을 두 봉투의 가운데 놓되 껍질을 씌운 막대기의 가는 쪽을 손에 잡을 수 있게 무대를 준비한다.

노는 사람은 무대에 나와서 먼저 봉투에는 아무 것도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리고 막대기를 들어서 책상을 한두번 가볍게 때려 막대기라는 것을 알린다.

그다음 왼쪽 손으로 오른 쪽에 있는 봉투를 들어서 거꾸로 막대기에 씌워 서너번 휘두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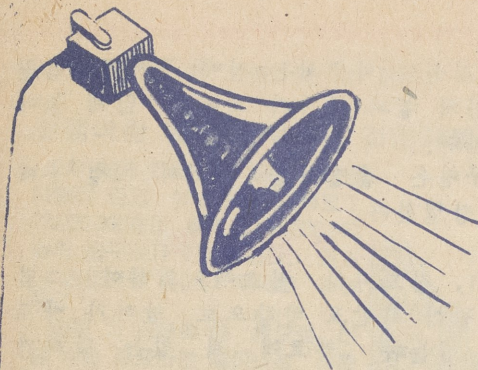
그리고는 막대기를 그대로 집어내는 척 하면서 손에 들어 있는 진짜 막대기를 봉투 속에 남겨 두고 껍질만을 살며시 빼낸다. 빼낸 것을 왼쪽 봉투에 다시 놓으면서 진짜 막대기인 것처럼 한다.

이래서 구경하는 사람들은 오른쪽 봉투에 놓었던 막대기가 왼쪽 봉투에 들어 간줄만 알게 된다.

이제는 시침이를 뚝 떼고서 소리를 지르면서 막대기가 오른쪽 봉투로 다시 넘어 간다는 표현을 한다.

그렇게 하고는 껍질이 들어 있는 봉투를 집어서 절반을 꺾어 버린 다음 바른쪽 봉투에서 막대기를 집어 내어 책상을 한두번 두드리면 된다.

행복의 숲

리 동 필

△갑, 을. 삽과 곡괭이를 메고 싱갱이를 하며 나온다.

을 (갑을 향해) 너 그래 정신은 온전 하냐? 따뜻한 봄날씨니까 어떻게 된가부지? (이마에 손을 얹는다).

갑 (손을 치우며) 이거 왜 이러는거야?

을 글쎄 잘 생각을 해 보렴! 세상에 비단 나무가 어데 있느냐 말이야!

갑 (을에게) 자! 있다는데두! 비단 나무만이면 좋게, 음악 나무도 있거든!

을 (걱정스레 갑의 얼굴을 들여다 보면서)틀림없이 뭐가 잘못됐어! (관중을 향해) 동무들! 그렇잖아요, 노래하는 나무두 있답니다. 이게 온전한 아이의 말이예요. (갑에게) 놀리지 말어! 거짓말을 해두 그럴듯 하게 해야지! 넌 정말 한심한 애구나!

갑 (을에게) 노래를 해두 아주 멋들어지게 한단 말이야!

을 눈감고 야웅 할 셈이냐?

갑 정말 그렇게 내 말을 못 믿겠니?

을 누가 그런 소리에 귀가 벌렁 해 할 줄 알어?!

△갑 좌우측을 가리키며.

갑 이게 무슨 나문지 아니?

을 뽀뿌라 나무지 뭐.

갑 저건?

을 그거야 황철 나무지 뭐.

갑 저—기 저기 보이는 나무는?

을 어느 거?

갑 뽀뿌라 나무와 백양 나무 사이에 우뚝 서 있는 나무말이야.

을 오, 그거?

갑 응!

을 그거야 삼송 나무지 뭐야.

갑 너두 꽤 알긴 아는구나!

을 그런데 비단 나무는 어데 있니?

갑 여기 있지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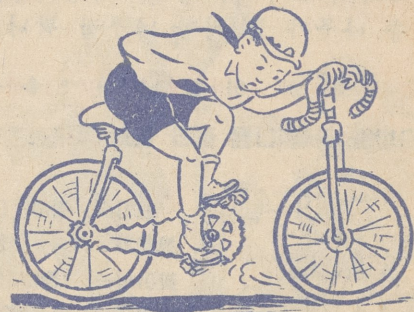
을 어데?

갑 네가 이자 말하지 않았니!

을 언제?

갑 이 뽀뿌라 나무, 황철 나무, 백양 나무, 삼송 나무가 바루 비단 나무란 말이다.

을 뭐?

갑 뽀뿌라, 황철, 백양, 삼송 나무는 옷감을 만드는 원료로 된단 말이야, 너 아니? 뽀뿌라 나무 한 립방메터로서

용남이는 자전거를 타고 있습니다. 그러나 완전하지 못한 자전거 입니다. 소년단원 동무들 완전한 자전거를 그려 보시오.

"유희" 어떻게 달릴까

1. 유희조직

ㄱ, 같은 인원수로 두편을 나눈다.

ㄴ, 달리기의 방법과 같이 돌아오는 곳을 정해 놓고 놀음 노는 인원수 만치 카트를 만들어 놓는다. 카트에는 ①두발을 모으고 뛰기 ② 깨금발 뛰기 ③옆으로 달리기 ④ 두 손으로 무릎을 잡고 깨금발 뛰기 ⑤ 뒤로 달리기 ⑥기여가기 ⑦보통 달리기 등의 여려가지 종류의 동작을 써넣는다.

2. 유희 장소

ㄱ, 유희 장소는 그림을 보고 하라, 카트는 점선이 마주치는 점에 두편의 인원수만치 놓되 글자가 보이지 않게 놓아야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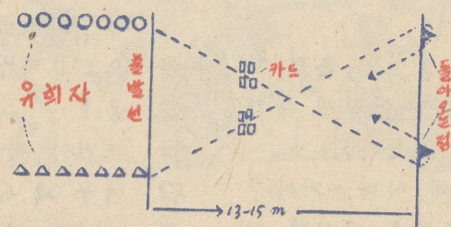
두편은 출발선을 향하여 1렬 종대로 정렬한다.

3. 유희 방법

ㄱ, 지도자의 신호에 의하여 그림과 같이 화살표 방향으로 달려가 카트를 집는다. 카트에 써 있는 달리기의 방법으로 활살표 방향과 같이 달려가 돌아올 곳을 돌아 출발선까지 와야한다. 그리고 다음 동무와 손을 마주치고 바꾼다. 이렇게하여 먼저 끝나는 편이 이긴다.

4, 주의할 점

ㄱ, 두편의 카트에 써넣은 동작은 같아야 한다.

ㄴ, 카트에 쓴 동작대로 정확히 실시해야 한다.

는 일천 이백 메터의 천을 짤 수 있거든!

을 정말이야?

갑 정말 아니구, 저 길주 팔프 공장에서는 말야, 이런 나무를 원료로 해서 좋은 비단을 짤 수 있게 숫한 팔프를 생산해서 청진 방적 공장에 보낸다.

을 그래?

갑 그러니 뽀뿌라, 황철, 백양나무, 삼송 나무가 곧 비단 나무지 뭐냐.

(이)(것)(을) (아)(십)(니)(까)(?)

은방울 꽃을 다른 꽃과 함께 꽂으면?

은방울 꽃을 다른 꽃들과 함께 꽃병에 꽂아서는 안됩니다. 은방울 꽃은 독소를 뿜기 때문에 다른 꽃들을 죽게 하니까요.

을 참 그럴듯 하구나 나두 들은 일이 있는 것 같애.

갑 그리구 저기 있는 저 나무하구 저기 보이는 나무는 기름나무, 혹은 약재 나무라구두 하거든!

을 저 소나무, 이깔나무, 잣나무가 기름나무 약재 나무야?

갑 그럼 저런 나무에서 기름두 짜구 약재 같은 원료도 뽑아 낸단 말이야.

을 그렇지 그렇지, 애 음악 나무라는건 이제 보니 우리 집 앞들에 있는 그런 거 겠구나?

갑 그런거라니?

을 오동 나무 말이다.

갑 알만하니? 오동나무뿐만 아니라 참나무, 박달 나무, 홍송 나무, 문푸레와 같은 나무에서도 멋진 음악이 울려 나오거든.

을 그러기 말이야.

갑 그런 나무를 가지구서 가야금, 행금 양금, 바요린, 첼로와 같은 악기들을 만들거던.

(이)(것)(을) (아)(십)(니)(까)(?)

전쟁이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2차 세계 대전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고 상했는지 아세요? 22,000,000명이 죽었고 34,000,000명이 불구자가 되였답니다. 그러니 전쟁이란 얼마나 무서운 것이예요?

만일 이 전쟁에 쓴 돈으로 다른 일을 했드라면 얼마나한 일을 할 수 있었을가요? 그 돈으로는 전세계의 모든 가정에 다섯 칸짜리 집이 하나씩 차례질 수 있고 이외에도 5천명 이상이 살고 있는 세계의 거리 마다에 10년동안 치료할 수 있는 갖가지 설비를 갖춘 큰 병원을 하나씩 지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을 그러구 보니 넌 나무 박사구나.

갑 그래서 말야 이런 비단 나무, 음악 나무두 많이 심어야 할 뿐만 아니라 기름 나무도 많이 심어야 해.

을 그렇지 가래 나무, 잣나무, 개암 나무, 분지나무, 초피 나무, 동배 나무 들을 심어 유지림을 이루고 기름과 공업 원료를 생산한다 그말이지?

갑 그럼! 유지림 뿐만 아니라 밤, 돌배, 살구, 다래, 머루, 들죽 나무와 같은 과실 나무도 많이 심으면 맛 좋은 과실과 고급 과자, 여러 가지 시롭, 제리, 식초를 만들 수 있거든.

을 참 대단하구나.

갑 그런데 건강 나무란게 어떤 건줄 아니?

을 뭐뭐? 너 이젠 못하는 소리가 없구나! 건강 나문 또 뭐야!

갑 깜깜이구나 넌! 건강을 위해 심는 풍치림을 그렇게 부르는 거야!

을 것두 그럴듯해! 그러니 경제림을 많이 일군다는건 정말 중요한 일이 구나!

갑 그렇구 말구 그래서 조선 로동당과 김 일성 원수님께서는 경제림을 더 많이 일구라고 가르치시지 않았니.

을 나도 알어! (감탄하듯) 야! 그러니 바다'가와 강'가 마다엔 나무가 들어차 바람과 홍수를 막아 주고

갑 그러니 쌀이 강물처럼 쏟아져 나올거구, 봄 여름에는 벌을 쳐서 꿀을 먹으니 좋고 신선한 공기를 호흡하니 건강에도 좋고.

을 참 우리 고향은 멋찌구나!

그러구 거리와 마을에는 울긋불긋 실과 나무가 들어 차서 언제나 맛 있는 실과를 먹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과쨤, 사과 시롭, 들죽 시롭, 앵두 시롭두 언제나 마실수 있구.

갑 그러니 경제림만 일쿠어 놓으면 비단 풍년, 과실 풍년, 쌀 풍년은 물론 공업에 더 많은 원료까지 보내게 되니 원료 풍년이 들게구!

을 이렇게 경제림을 일쿠는 일은 우리가 먹고 입을 걱정을 없게 해줄 뿐만 아니라 항상 건강하게 즐겁게 살 수 있게 해주거든!

갑 그러니까 우리는 경제림을 일쿠는데 모두다 힘차게 앞장서 나서야 한다.

을 정말이야!

△막 뒤에서 《소년단 행진곡》

갑 애 시간이 늦었어 벌써 모이는가부다 애.

을 가자! (나아가려는데)

갑 (붙들면서) 앤 인사두 안하구 그냥 갈래?

을 참!

갑을 (같이) 나무 심는 일에서도 항상 앞장 서겠습니다. (소년단 경례)

— 막 —

남현주 그림

우쭐한 원숭이

걱정 말어!
이겨라! 우리동산 이겨라!

련락이 다 뭐야!
련락! 련락!

이런 땐 요런 재주도 있거든

야! 이것 봐라!
힝!

련락! 련락!

슛!
슛!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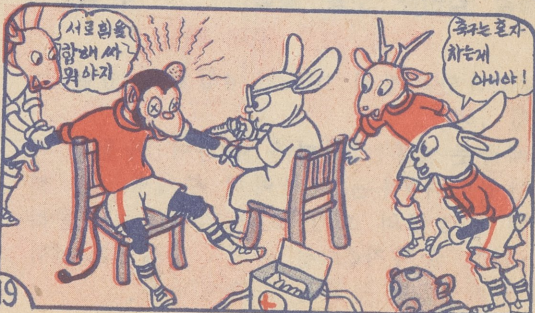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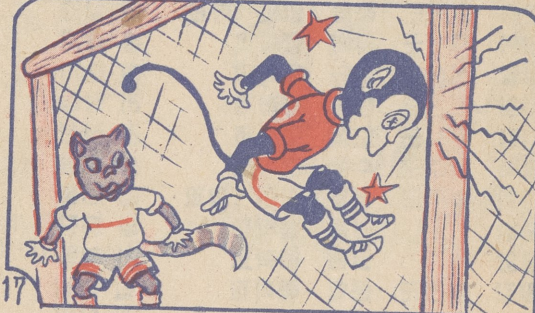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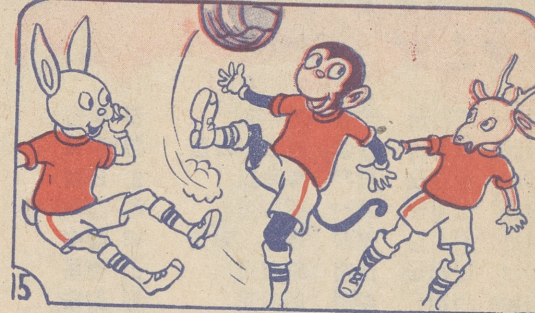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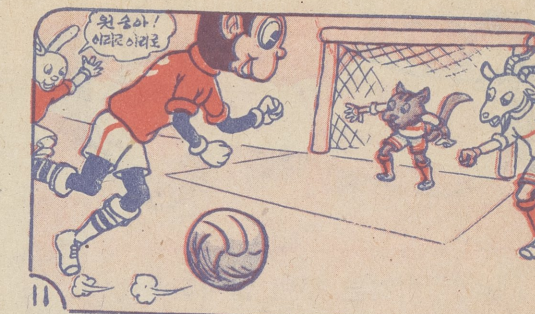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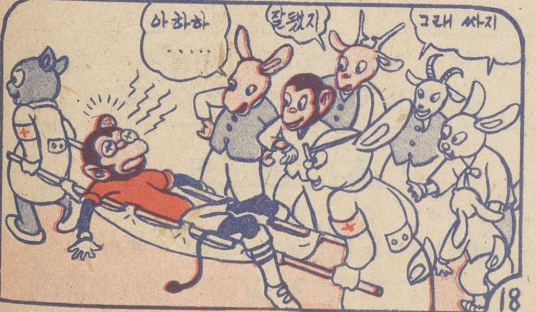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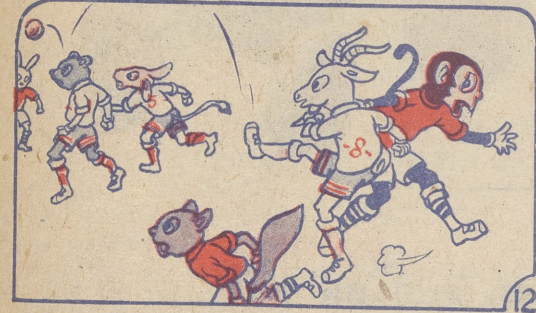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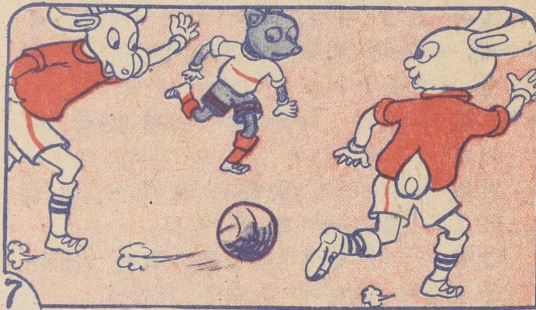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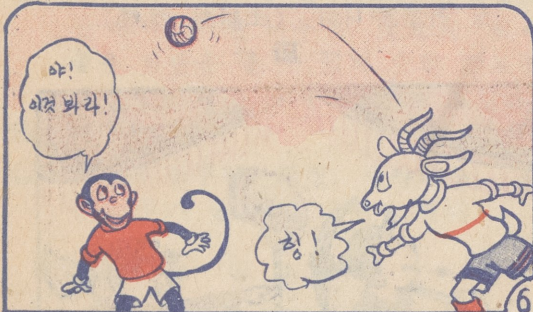
이런 법두 있니 난 네 편이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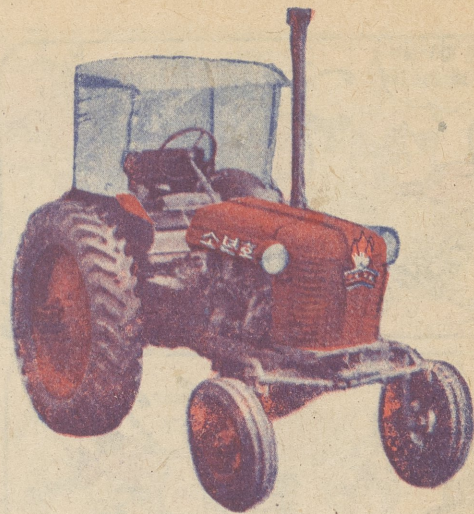
원숭아! 이리로 이리로

이기면 될게 아냐!
옳지 못해
혼자서 다할래?

요놈!

아하하 ……
잘됐지
그래 싸지

서로 힘을 합해 싸워야지
축구는 혼자 차는게 아니야!

이것은 무엇 입니까?

오른 쪽의 뜨락또르 이름은 무엇이며 이 뜨락또르는 왜 그런 이름을 가지게 되였습니까? 그리고 이 뜨락또르는 몇형제나 되며 지금 어느 농기계 작업소들에서 일하고 있습니까? 첫 밭갈이를 한 누나는 어느 작업소의 누구인가요?

1959년 12호 현상 문제 해답

1, 평양에 있는 대동문입니다. 고구려 시대에 지였습니다.

2, 평양 정거장입니다.

알아 마친 사람

함북	명천군	양정 중학교	허 정명
함남	퇴조군	흥상 인민 학교	최 길옥
함남	광천군	광천 중학교	렴 태섭
강원	이천군	회산 중학교	주 정옥
강원	고성군	복송 인민 학교	박 갑수
평남	상원군	대천 중학교	리 련옥
평남	덕천군	수하 중학교	변 창숙
황북	연탄군	풍답 인민 학교	리 상근
황북	곡산군	평암 중학교	홍 경자
황남	신천군	석당 중학교	현 순자
자강	전천군	운송 중학교	리 학송
자강	우시군	오상 중학교	리 정선
평북	삭주군	수풍 중학교	홍 종남
평북	염주군	중호 인민 학교	김 재봉
평양		인흥 중학교	남 용규
평양		굴원 중학교	리 철종
량강	부전군	문암 중학교	김 창남
량강	갑산군	오일 중학교	조 옥인

1월호 현상 문제 해답

《소년단》 잡지 1959년 4월호에 있는 그림입니다.

제목은 《나는 혁명을 위하여 싸우는 아동단원이다》라는 제목이며 주인공 리 화순이가 놈들의 모진 고문 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끝까지 《조선 독립 만세!》, 《혁명 만세!》를 웨치는 모습입니다.

알아 마친 사람

평북	향산군	룡성 중학교	리 옥희
평북	벽동군	벽동 중학교	김 선옥
자강	전천군	길상 중학교	리 승하
자강	강계시	외룡 중학교(인민반)	안 옥숙
평남	강동군	석룡 중학교	김 관형
평남	온천군	서화 중학교	박 명구
황북	봉산군	대룡 중학교	김 선원
황북	신평군	장암 중학교	양 봉학
황남	청단군	구월 중학교	심 광일
황남	벽성군	죽천 중학교 제 1 분단	일동
함북	청진시	어항 중학교(인민반)	김 용훈
함북	김책시	성진 초등학원	김 의길
함남	신창군	금호 인민 학교	리 종건
함남	홍원군	관룡 중학교	박 병옥
강원	이천군	산참 중학교(인민반)	박 문령
강원	문천군	삼일 중학교	신 문기
량강	백암군	덥립 제 2 인민 학교	김 백용
량강	후창군	연포 중학교	조 창후
평양		안산 중학교	문 수옥
평양	남산	고급 중학교(인민반)	채희려, 정 건

조선 민주 청년 동맹 중앙 위원회 소년 잡지
《소년단》 1960년 제 3 호 (총 125호)

편 집 위 원 회

발행소 민 청 출 판 사
인쇄소 로동 신문 출판 인쇄소

ㄱ—31078 값 25 전 150,000부발행

나무를 어떻게 심을가요?

나무를 심는 구덩이의 크기는 묘목의 크기와 땅에 습기가 많은가 적은가에 따라 각각 다르게 파야 합니다.

습기가 많지도 적지도 않는 땅에서는 구덩이의 길이와 너비를 30~35 Cm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습한 땅에서는 30 Cm 높이로 둑을 만들고 나무를 심어야 합니다.

습기가 적은 땅에는 구덩이의 너비 30~35 Cm, 길이 40 Cm를 파고 심어야 하는데 땅 표면보다 5 Cm 낮게 묻어 가물의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구덩이를 다 파면 좋은 흙을 약 반 삽 가량 떠서 놓은 다음 묘목을 담아 가지고 다니는 그릇에서 한대의 묘목을 뽑아서 그의 밑둥을 왼손으로 잡고 바른 손으로 뿌리를 잘 펴면서 구덩이에 바르게 세웁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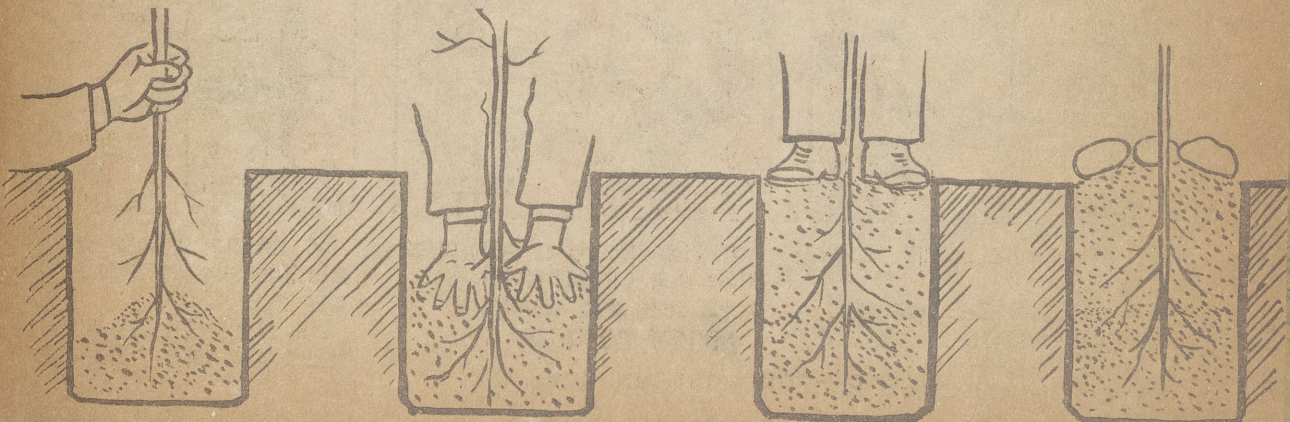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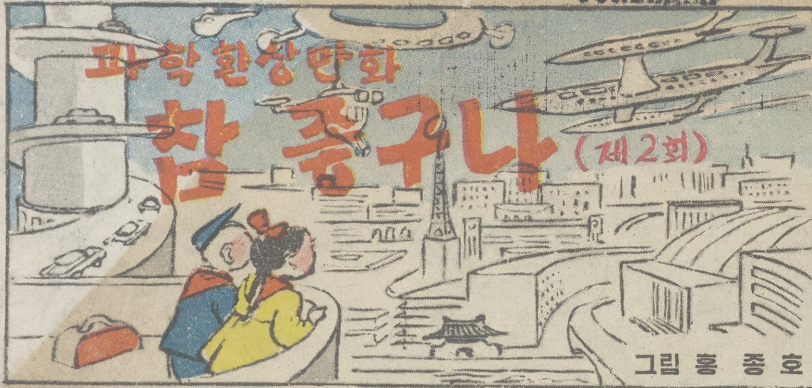
이때 나무의 밑둥은 땅 표면과 같게 놓여 있거나 또는 그 보다 약 1 Cm 가량 깊게 놓여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엔 왼손으로 나무의 밑둥을 잡은 채 오른 손으로 좋은 흙을 집어 묻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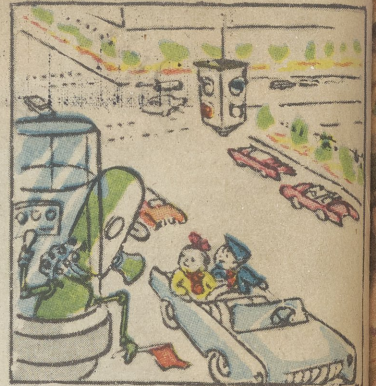
이리하여 절반쯤 묻으면 나무의 두리를 두 손으로 꽁꽁 다진 다음 근처의 흙으로 묻습니다. 다 묻으면 나무의 정수리를 가볍게 잡고 돌아 가면서 발로 잘 다져 준 다음 표면을 손으로 긁어 주거나 우에다 흙을 뿌려 줍니다. 그리고 나무 주위에 돌이나 떨어진 나무'잎을 덮어 가물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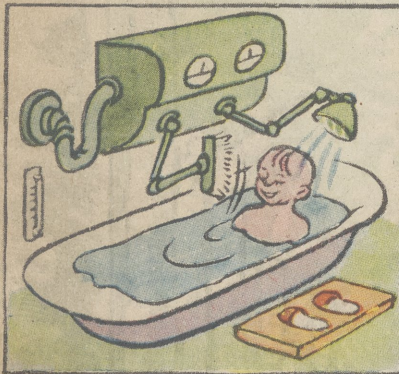
나무는 양묘장에서 자랄 때 흙에 묻혀 있던 깊이보다 1~2 Cm 가량 더 깊이 심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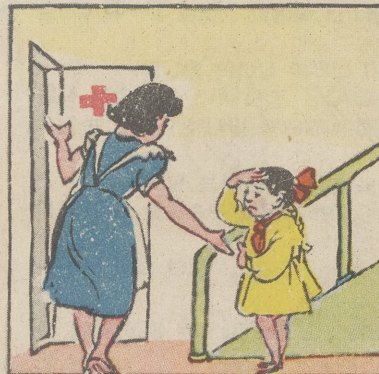
나무를 심는데 주의하여야 할 것은 나무의 뿌리가 마르지 않도록 잘 간수해야 합니다. 나무의 가는 뿌리는 아주 약하기 때문에 해가 쨍쨍한 봄날 5~10 분만 볕을 쬐이면 곧이 곧 말라 버리기 때문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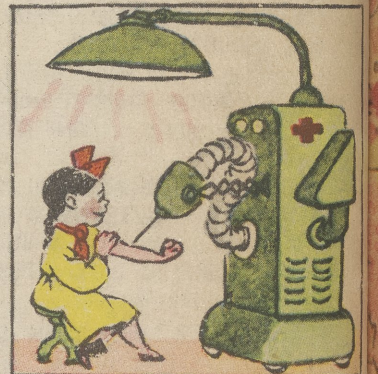
그러므로 나무는 반드시 바구니나 다른 그릇에 담아 가지고 다니며 심어야 합니다. 그릇 안에는 이끼를 놓어서 나무의 뿌리를 묻어 가지고 다니는 것이 좋습니다.

① 순남이와 영옥이는 앞날 우리 나라의 수도에 도착했다. 이들이 타고 온 비행기는 달팽이집 같이 생긴 높은 탑 꼭대기에 내려 앉았다. 다음 비행기는 미끄럼'대를 타듯이 탑을 빙빙 감고 도는 길을 따라가다 멎었다. 이여 마중 나와 있던 자동차가 이들을 태우고 내려 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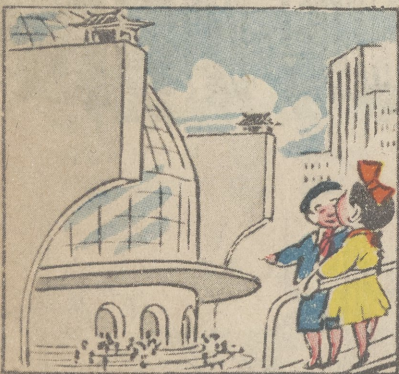
영옥—야! 집들이 참 멋있구나.

순남—영옥아! 빨리 차를 타고 시내로 들어 가자.

② 순남이와 영옥이는 운전수 없이 자동식으로 달리는 차를 타고 려관을 향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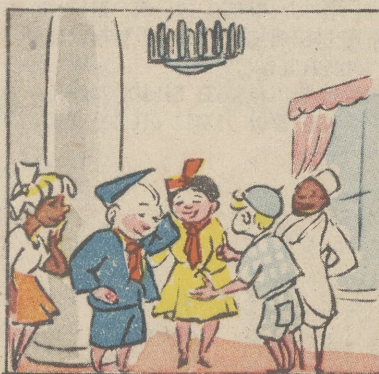
영옥—야! 기계 사람이 교통 지휘를 하는구나.

③ 려관에 든 순남이는 목욕탕에 들어 갔다.

순남—목욕탕이 참 멋있구나 .자동식 기계 장치들이 몸을 다 씻어 주는구나.

④ 영옥—안내원 어머니, 난 머리가 아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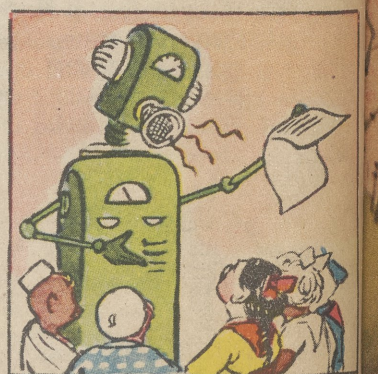
안내원—걱정 없다. 이 방에 들어가 진찰을 받아라. 자동식 기계 의사가 있다.

⑤ 자동식 기계 의사는 영옥이를 진찰하고 자동식으로 주사를 놓아 주었다.

영옥—야! 참 멋있는 의사로구나.

⑥ 영옥—나 이전 아프던 것 다 나았어.

순남—그럼 아동 궁전에 놀러 가자.

영옥—좋아 어서 가자.

⑦ 아동 궁전으로 간 순남이와 영옥이는 외국 소년들을 만났다.

순남—말을 알 수 있어야지

[illegible]

⑧ 순남이와 영옥이는 외국 소년들과 함께 번역 기계가 있는 방으로 들어 갔다.

번역 기계는 어느 나라 말이나 척척 번역하여 그들을 기쁘게 하여 주었다.